2012. 6. 21 (목) 14:00~14:20 20분간

정전 대비
위기 대응훈련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며, 전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을 알립니다.
불필요한 전원을 모두 끄고, 훈련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최대한 절전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06.20 NO.164
gonggam.korea.kr

이 땅과 겨레, 조국을 위한 그 헌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P21~39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진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국가란 무엇인가. 나라는 현재만 가지고 즐기며 살아가는 즉흥 무도회 같은 '하루살이 공동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진짜' 국가인가. 눈이 쌓여 눈썰매장이 되고 스키장이 되듯, 과거가 쌓여 현재를 이루는 '연속성의 공동체'가 바로 진짜 나라다. 과거에 흘린 피와 땀이 진하면 진할수록 현재가 풍요해지고 더 큰 결실을 누리는 법이다. 할아버지·아버지 세대가 흘린 피와 땀이 실개천을 이루고 그들이 모여 도도한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것이 국가의 영혼이자 민족의 혼이 되는 이치일 터이다.

그렇기에 고대 로마인들도 항상 입버릇처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Roma non uno die aedificata est)"라고 외치곤 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는가. 자유와 번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며 과거에 대해 엄숙하고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위한 용사들의 죽음, 즉 '호국 용사들'의 죽음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야 할 기념비다. 나 자신을 위해 흘린 눈물과 땀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위해 바친 젊음과 목숨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다. 용사들의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 위에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가 살아 있는 자의 도리다.

평택해군기지에 가서 침몰됐다가 인양된 천안함 잔해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는가. 아니, 국립현충원에 가서 그곳에 누워 있는 6·25 참전 용사들의 묘를 보았는가. 펜 대신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북한지역에서 발굴돼 62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긴 국군용사의 유해를 보았는가. 누워 있는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가.

국가공동체를 위한 '호국용사들'의 죽음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야 할 기념비다. 이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임이 분명해졌고 한층 더 성스러워졌다. 호국용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살아 있는 우리의 몫이다. 이들의 죽음으로 대한민국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임이 분명해졌고 한층 더 성스러워졌으며 더욱 더 튼튼해졌다. 앞선 사람들의 희생을 딛고 더 큰 풍요를 누리는 국가, 호국용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떠안은 호국용사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슴속 깊이 묻어 그들을 국민적 기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살아 있는 우리가 호국용사들을 기리고 뜻을 이어받고 되새겨야 한다.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지탱되는지 깨닫고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애국가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지, 병역의 의무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국가의 진실'을 흘려 보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G

Contents 164호

2012.06.20 통권 265호

표지 이야기 | 시한이 없다. 장소를 가리지도 않는다. 마지막 한 구의 유해가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지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국군 전사자가 13만명에 이른다. 나라의 명을 받고 올라간 1천4백미터 설악산 저항령 고지 능선. 그대들은 비록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했지만, 죽어서도 그곳에 누워 지난 60년간 조국의 산하를 지켰으리라. 사진·연합

기획특집

호국보훈 나라사랑 숭고한 뜻 살린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생사를 같이했던 전우야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로 시작되는 가요 '전우가 남긴 한마디'다. 허스키한 음색의 여가수가 부른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알 수 없는 슬픔과 감동에 먹먹해지곤 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는 부분에서는 눈물까지 글썽였던 기억이 난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62년이다. 최근 들어서는 6월이 돼도 좀처럼 이 노래를 들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하는 문화 선진국으로 성장한 데는 '꽃잎처럼 떨어져간' 선열들, '죽어서도 조국을 지키겠노라'던 선배들의 희생과 나라사랑 덕분임을 잊지 말자.

21

08

54

48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2.06.2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28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학군 수요 관리감독 통해 부동산 가격 더 안정돼야

163호에 '강남학군 수요 감소'라는 반가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학군 수요 감소로 전셋값이 진정되었다니 심하게 앓던 이를 뺀 것처럼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집 마련, 월세, 전세 모두에 이런 변화가 실현돼 서민들이 집 때문에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대학 자율권이 커질수록 학군 수요가 약화된다는 연구원의 말에 귀 기울여 대학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꾸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는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상대(40·프리랜서·인천 부평구 부평동)

영어가이드북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163호에 로저 셰퍼드씨의 자전거 여행 기고를 보며 나도 빨리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이화령, 여주 이포보 등 좋은 자전거 여행 코스를 다녀보지 못했는데 올 여름 휴가 때는 그곳들을 둘러보고 캠핑도 즐길 계획입니다. 또 셰퍼드씨가 출간했다는 <백두대간 트레일>도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났습니다. 앞으로 셰퍼드씨처럼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제안한 영어가이드북들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배동희(36·회사원·충남 천안시 서북구)

FTA로 장바구니 더 풍성해지길…

163호에 실린 FTA 기획 주부체험 기사를 보고 같은 주부로서 상당 부분 공감했습니다. 특히 체리, 자몽, 오렌지 등 과거에는 비싸서 잘 못 먹던 과일들을 종류별로 맛볼 수 있게 되고, 와인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저도 FTA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너무 올라 만원 한 장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FTA라는 기회를 잘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장바구니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숙(58·주부·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농어촌 재능기부로 농어촌 활력 찾았으면

162호의 공감화제 기사를 보며 앞으로 우리 농촌이 더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농활을 다녀온 적이 있어 기사를 보며 그때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시골의 정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보람도 얻었습니다. 요즘은 대학교에 농활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던데, 정부 지원으로 이런 문화가 다시 활성화된다니 기쁩니다. 농어촌 재능 기부 사업을 통해 농어촌도 활력을 찾고 학생들도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황수윤(27·학생·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독자 인터뷰

"매주 기획특집 기사 읽으며 지식 키워 … 다양한 삶의 이야기도 기대"

이지은(27·회사원·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이지은씨는 서울 강남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을 관리하다 보면 쉴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기 마련이라고 한다. 학교를 다닐 때는 신문도 제법 읽고 토론을 즐겼지만 요즘은 그러지 못해 아쉽다. 그런 이지은씨에게 <위클리 공감>은 '교과서'다. 매주 실리는 기획특집 기사를 읽으면서 지식을 넓히고 여유를 되찾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여수엑스포나 4대강 등 직접 가보기 힘든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읽을 수 있어 매주 빠뜨리지 않고 <위클리 공감>을 찾는다.

163호에서 재미있게 읽은 기사가 있나요.

"아무래도 FTA 특집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FTA가 논란일 때 공부하려 했는데 솔직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읽어볼 글도 너무 많아서 뉴스에 FTA 이야기가 나오면 외면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호에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한·중·일 FTA도 본격적으로 이슈화될 것 같은데 뉴스를 볼 때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이나 와인 가격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읽고 마트에 가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위클리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사람들 삶의 냄새가 묻어나는 기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남동생이 봉사활동을 갔는데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짬을 내 봉사활동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위클리공감>에서도 다뤘던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읽고 싶어요. 제 직업이 강사다 보니 교육 관련 기사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교육 정책이나 제언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공부하고 싶거든요."

알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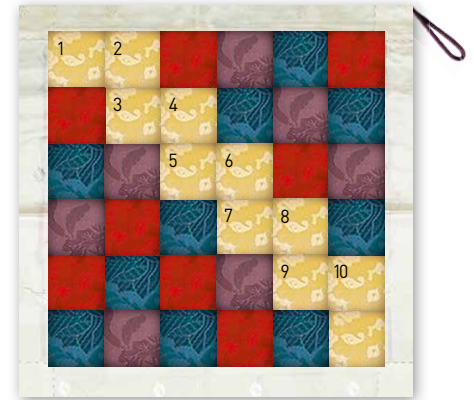
2012 에코드라이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작품 공모전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에코드라이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작품을 공모한다. 에코드라이브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제운전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관련된 자유주제로 UCC, 포스터, 표어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코드라이브 홈페이지(www.ecodriving.kr)를 참조하면 된다.

응모자격 | 에코드라이브에 관심 있는 국민
응모분야 | UCC, 포스터, 표어
응모주제 | ·경제운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발전에 관한 자유주제
·경제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시상내역 | UCC 최우수상 2백만원 외 우수 및 장려상 7명, 포스터 최우수상 1백만원 7명, 표어 최우수상 50만원 외 7명
접수기간 | 2012년 6월 18일(월) ~ 9월 28일(금) 오후 5시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접수(단, UCC 작품은 우편 및 방문접수에 한함)
문의 | 홈페이지 참조(www.ecodriving.kr)

제5회 지식재산권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광고 공모전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광고를 공모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상품 구매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구매방지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인쇄광고, 웹툰, 엠블럼, 슬로건을 제출하면 된다. 부문별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kipraad.net)를 참고하면 된다.

응모대상 및 분야 | ·인쇄광고/웹툰 –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엠블럼/슬로건 –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공모전에 관심 있는 일반인
응모주제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상품 구매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및 구매방지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
시상 내역 | 특허청장상(대상) 3 작품 포함 총 17점
접수 기간 | 2012년 5월 29일(화) ~ 7월 9일(월)
제출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문의 | 이메일 kipraad@gmail.com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6월 28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유골. "정부는 6·25전쟁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묻힌 13만여 위 호국용사들을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ㅇㅇ발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적과 싸우다 죽음.
5. 지키고 보호함.
7.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조직한 군대.
9. 한 집안의 보배로운 물건. "네 할아버지가 6·25전쟁 때 받은 이 무공훈장이야말로 우리 집의 ㅇㅇ다."

세로

2. 바다에서 적과 벌이는 전투. "국가보훈처는 6월 13일 제2연평ㅇㅇ 사이버추모관 운영서버를 개선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죽음을 무릅쓰고 지킴.
6.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8.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진짜 사나이). 동이 트는 새벽꿈에 고향을 본 후 외투 입고 투구 쓰면 맘이 새로워(행군의 아침). 무엇의 가사일까요?
10. 나라를 위한 공훈에 국가가 보답하는 것.

<Weekly 공감> 162호(6월 6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보릿고개 3 가훈 4 절전 5 국어 6 품평회
세로 1 보훈 2 고사성어 3 가전제품 5 국회 7 평창

<Weekly 공감> 162호 '공감 퍼즐' 당첨자
조미숙·경북 상주시 은척면
신금화·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이경화·경북 울진군 기성면
김지만·인천 남구 숭의3동
김무웅·강원 태백시 상장동

전력예비율 아슬아슬… 절전 참여 늘리자!

6월 21일까지 '국민발전소 건설주간'… 생활 속 절전요령 홍보

때이른 무더위와 가뭄이 지속되면서 냉방수요가 급증, 전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5월부터 예비전력이 3백50만~5백만킬로와트에 불과한 전력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6월 초에는 예비전력이 3백50만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져 '관심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산업체 수요관리 등 특단의 조치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예측 불가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9·15 정전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가 절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5월 이후 전력수요가 4백만킬로와트나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발전소들이 전력소모가 많은 여름철에 대비해 안전 정비에 들어간 데다 안전기준 강화 조치로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6월 현재 고장이나 안전 정비 문제로 임시 휴업 중인 발전소가 40기(전기 생산량 1천1백33만킬로와트)에 이른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5월~6월 초의 예비전력이 3백50만~5백만킬로와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킬로와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한여름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월 말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절전 대책을 조기 시행 중이다. 우선 전력 소모가 많은 분야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피크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산업체(54퍼센트)다. 정부는 ▲피크 시간 조업 조정 ▲자가용 발전기 최대 가동 ▲냉방 가동 중지 등의 방법으로 산업체가 전 국민의 자율절전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주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전력 피크 점유율 높은 산업체 등 참여 유도

피크 시간 조업 조정은 한국전력공사와 수요관리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4천여 개의 계약 체결업체 중 실제 평균 수요관리 참여 업체는 1천여 개에 불과하다.

전력 피크 점유율이 두번째로 높은 곳은 상가와 사무실 등 일반 건물(27퍼센트)이다. 정부는 상가의 경우 ▲냉방기기 등 가전제품 사용 일시 중지 ▲자동문 및 에어커튼 사용 중지 ▲조명 최소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의 경우 ▲PC 등 사무기기 전원 차단 ▲냉방 가동 중지 ▲조명 소등 등의 방법으로 절전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전 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을 제작하고, 지자체(행정안전부), 유통업체(지식경제부), 금융기관(금융위원회), 숙박·요식업체(보건복지부), 관광업체(문화부) 등 부처별 소관 업종 단체와 시민단체·지자체 대상의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가정(11퍼센트)은 전력 피크 점유율이 세번째로 높은 곳이다. 정부는 각 가정 역시 냉방기기 등 가전제품 사용 일시 중지와 조명 소등으로 절전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중이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반상회보, 가정통신문, 전기요금 고지서 등에 정전 위기에 대비한 훈련 내용을 게재하고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훈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7대 도시서 실제 상황 가정한 단전 비상훈련

실제 단전 상황을 가정한 단전 대비 비상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전국 7대 도시에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산업체, 학교 등 28개 시범 건물을 선정, 단전이 됐을 때 해야 할 행동 요령을 훈련시키고 있다.

비상시 행동 요령은 ▲건물 내 안내방송 ▲스마트폰·충전식 라디오 등을 통한 방송 청취(전력수급 상황 파악) ▲비상발전기 및 비상용 전원(유도등) 점검 ▲기기 손상 방지를 위한 가전기기 및 생산시설 전원 차단 등이다.

비상훈련이 있을 때는 단전 조치 건물에 대해 한전과 지자체가 사전에 방문해 훈련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단전 대상 건물에 한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불량한 경우 무료로 보수해주고 있다.

승강기, 병원, 지하철 등의 시설물은 단전이 됐을 때 취약한 곳이다. 정부는 단전 시 취약한 시설물에서의 구조 요령과 대피 훈련은 물론 산업체와 상가, 병원, 주택 등에 있는 총 6만2천4백여 대의 비상용 발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력 위기대응 훈련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경계 단계 14:00

경계 단계
- 예비력이 200만kW 이하가 되어 계획단전(순환정전) 직전 단계로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모든 국민의 비상절전 노력이 필요한 상황

비상 절전요령
- **가정에서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및 가전기기 가동을 중단하고 각 방의 조명을 소등합니다.
- **사무실과 상점에서는** 냉방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조명기기 및 가전제품을 꺼야 합니다.
- **산업체에서는** 냉방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전기다소비 공정을 조정하는 등 전기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심각 단계 14:10

심각 단계
- 예비력이 100만kW 이하가 되어 대규모 정전 방지를 위한 계획단전(순환정전) 단계로 정전에 따른 침착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정전시 행동요령
- 정전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1개의 조명등을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 승강기가 멈추거나 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 우리집만 정전인지 확인하고, 누전차단기나 전원개폐기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승강기 등 필요한 개소에 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합니다.

경보 해제 14:20

경보 해제
- 전력 수급 상황이 호전되어 전력 공급이 재개되는 상황

해제시 행동요령
- 가전제품 하나 하나마다 플러그를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 육류나 생선 등 냉장·냉동 식품은 상태를 확인하고, 빛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면 바로 폐기합니다.

6월 21일 오후 2시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에 참여하세요!

6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훈련이 시작되면 불필요한 전원을 모두 끄고, 훈련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최대한 절전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 상황을 시청(청취)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를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포,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4대 실천요령'을 행동으로 옮기면 '일주일 만에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4대 실천요령'은 ▲아끼자 '25시' ▲사랑한다 '26도' ▲가볍다 '휘들옷' ▲자~뽑자 '플러그' 등이다.

한편 '국민발전소 건설주간' 마지막 날인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 국민 대상의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경계 단계(14:00)' '심각 단계(14:10)' '경보 해제(14:20)' 순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은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글·서철인 기자

학교폭력 현장대처 능력 향상에 집중

정부와 쌍방향 소통 채널 가동… 현장점검과 컨설팅 강화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2일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은 7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 학교 전담경찰관을 증원한다. 학교폭력 척결에 성역은 없다.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능력을 좀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7월까지 현장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점검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시·도교육청별로 7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초기대응 부실, 은폐·축소 등 사안처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컨설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발견된 문제점과 조치방안은 사례별로 정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가칭)'을 제작,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학교폭력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관 현장점검단 7월까지 집중점검

정부는 퇴학이나 장기결석 등으로 사실상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최소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두고 위(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권고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16개 시·도 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해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위험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2012년 30명 규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두드림존(50개소)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자립동기를 부여하고, 고용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해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 사회로의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학교 전담경찰관을 증원하는 등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지난 6월 12일 서울 상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폭력 근절 형사모의재판을 열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직업·주거 등의 자원을 발굴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 자립 및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전담경찰관 5백17명으로 확대 배치

위원회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바람직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종합 방안'을 마련키로 한 위원회는 6월 중에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생활 실천 과제를 발굴키로 했으며,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인성교육 실천 보고서'를 8월 말까지 작성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류형석 정책홍보과장은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범국민적 인성교육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금년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교 전담경찰관' 3백6명을 5백17명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학교 전담경찰관이란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담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가리킨다.

경찰은 앞으로도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기본이 바로 서면 방법은 저절로 생긴다는 말이 있듯 학교·지역사회·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학교폭력 근절에 이르는 길도 멀지 않다"고 강조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각각의 정도(正道)를 당부했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정책 공모전

한편 교과부는 6월 30일까지 '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수사례 부문과 정책제안 부문 등 두 가지로 나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인 각급 학교, 지자체, 기업 등 각종 단체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우수사례 부문에선 30개 학교와 10개 기관을 선정해 교과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기관당 상금 1백만원을 수여한다.

학생·교원·일반인(대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 중 우수 제안을 채택하는 정책제안 부문에 선발된 사람 또는 팀에게는 교과부장관 표창과 금상 1백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당선작 공표는 7월 13일.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교과부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G

글·이범진 기자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아이들 얼굴 여수 바다만큼 웃음꽃 활짝”

밀가루 위에서 놀고 청자도 빚어보고… 영어뮤지컬도 감상

전체 면적 25만제곱미터에 80여 개 특화·전시시설, 51개 국제관, 하루 평균 공연·체험행사 90여 회. 여수엑스포를 하루 만에 즐기기란 불가능하다. 딱 하루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면 주제를 잘 잡고 가야 알찬 관람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라면 어린 자녀와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테마로 잡아보자.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체험! 여수엑스포 어린이 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가루야 가루야’ 체험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통밀방에서 신나게 놀고 있다.

어린이 극장

다양한 체험장이 있는 어린이 가족 필수코스

“밀가루를 내 마음대로 뿌리고 가지고 놀 수 있어서 엄청난 경험이었다. 이 많은 밀가루로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수 여문초등학교 3학년 승아가 여수엑스포 어린이 극장에 다녀와서 쓴 일기의 한 대목이다. 개장 전 리허설 때 엑스포장을 둘러본 승아네 가족은 엑스포 기간 내내 입장가능한 전 기간권을 끊었다고 했다. 승아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여수엑스포역을 나오면 정면에 박람회장 입구가 보인다. 3번 게이트(3문)를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어린이 극장이 있다.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동반한 가족이라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다.

현재 어린이 극장에서는 ‘가루야 가루야’와 ‘강진청자 빚기’ 체험전이 열리고 있다. ‘가루야 가루야’는 엑스포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15회 운영되며 1회 체험 인원 2백명.

진행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신발과 양말을 벗고 체험장에 들어서면 넓은 마룻바닥 곳곳에 발이 푹푹 빠질 만큼 밀가루가 쌓여 있는 ‘가루방’이 나온다. 가루방 체험을 마치면 통밀이 가득한 ‘통밀방’으로 이동한다. 플라스틱 공과 삽, 바구니가 있어 통밀 위를 뒹굴다가 공놀이와 소꿉놀이도 할 수 있다.

여수엑스포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거리·볼거리가 많다. 포스코관에서 한쪽에서 소리를 내면 다른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나팔에 귀를 대고 감상하는 어린이들.

가루방과 통밀방에서 각각 20분씩, 총 40분 동안 놀고 나면 에어샤워를 하며 몸에 붙은 밀가루와 통밀을 말끔히 털어내는 것으로 체험을 마친다.

‘강진청자 빚기’도 인기다. 청자의 제작과정을 소개하는 모형을 지나 체험장에 입장하면 청자 코일링(찰흙을 길쭉하게 빚어 원하는 도자기의 기초형태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오는 7월 1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체험이 가능하다. 동시에 2백명 수용이 가능해 대부분 도착 즉시 체험 가능하다. 전 연령대 대상.

문의 어린이 극장 ☎061-659-2601, 2605

천막극장

매일 오전 10시 어린이 관객을 위한 특별공연

여수엑스포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들도 있다. 해양산업기술관 옆에 위치한 1천석 규모 실내 공연장인 천막극장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공연이 열린다.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6월 10~24일)는 똥을 소재로 추리와 판단을 통해 사고력과 판단력, 관찰력을 키워 주는 공연이다. 동물 분장을 한 출연자들이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국악 인형극 〈덩더쿵따쿵〉(6월 25일~7월 9일)은 우리나라 전통 소리와 악기를 소개한다. 악기소리와 명칭을 알아보고,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이미지를 느껴본다.

영어 뮤지컬 〈티스〉(7월 13~28일)는 친숙한 동화 줄거리에 이를 잘 닦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았다. 영어에 대한 친근감과 건강한 치아관리 습관을 길러준다.

뮤지컬 〈사과가 쿵〉(7월 29일~8월 11일)은 동명의 베스트셀러 동화를 토대로 여러 의성어와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문의 천막극장 ☎061-659-2603, 2606

유아·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시설	프로그램	내용	일정	이용 안내
어린이 극장 (실내)	감각 체험	가루방과 통밀방에서 상상력·창의력을 키우는 놀이체험	5월 12일~8월 12일 오전 10시~오후 5시, 25분 단위로 입장	만 3세~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보호자 동반 가능
		청자 코일링 체험. 완성된 작품을 갖고 갈 수 있음	5월 12일~7월 11일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전 연령 대상
천막극장 (노천극장)	어린이 뮤지컬	똥을 소재로 사고력과 판단력, 관찰력을 키워주는 공연	6월 10~24일 오전 10시	공연 시간 30분
	국악 인형극	인형극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소리와 악기를 배움	6월 25일~7월 9일 오전 10시	공연 시간 30분
	영어 뮤지컬	영어에 대한 친근감과 건강한 치아관리 습관을 길러준다	7월 13~28일 오전 10시	7월 21일은 공연 없음
	어린이 뮤지컬	여러 의성어와 다양한 동물이 등장해 호기심 자극	7월 29일~8월 11일 오전 10시	공연 시간 30분

※당일 선착순 입장 가능

체험 학술행사 해피아

해양지식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풀어줘

여수엑스포는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전문적인 해양지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바로 국제관C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체험 학술행사 ‘해피아(Happia)’다. 해피아는 중·고생과 일반인뿐만 아니라 유아와 초등학생이 해양지식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살아 있는 심해탐구’은 망간단괴 발견의 주역인 박정기 박사가 직접 강연자로 나서 유아와 초등학생들에게 심해탐사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낸다. 강연 후에는 심해생물과 탐사선을 3D 입체퍼즐로 만들어본다. 7월 3~5일까지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1회 입장객은 초등학교 4~6학년과 보호자를 포함해 5백명. 참가 신청은 해피아 홈페이지(www.expo2012-happia.org)에서 하면 된다.

‘신나는 바다놀이터’는 EBS 어린이 안전 애니메이션 ‘우당탕탕 아이쿠’ 캐릭터가 등장하는 어린이 수상안전 뮤지컬이다. 여름 휴가철에 필요한 수상안전 교육을 유아들이 재미있게 받을 수 있도록 꾸며졌다. 7월 28일~8월 3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1일 2회 한 시간씩 공연하며 유아와 보호자가 동반 관람할 수 있다. G

문의 해피아 www.expo2012-happia.org ☎061-659-4594~5

글과 사진·남창희 객원기자

“목표 정하고 스펙도 양보다 질”

체계적·공격적 전략 필요… 정부도 청년취업에 맞춤형 지원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전문가들은 “취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구직자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라고 조언했다. 한 대학생 직업컨설턴트는 “취업의 제1순위는 먼저 자기의 적성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사업 추진현황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http://www.work.go.kr/intern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의 인턴 기회 제공
- 참여자격 :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5세까지)
- 실시기업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수준 : 기업에 인턴 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월 65만원 정액 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http://myjobacademy.kr
기업·사업주 단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 지원대상 :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생(29세 이하, 군필자는 31세 이하)
- 과정개설 : 기간은 2월~1년, 기업·사업주 단체가 대학 교과과정과 연계(학점인정 등)하여 과정 개설

창조캠퍼스 http://creativecampus.kr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찾아내 이들의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구체화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 http://worldjob.or.kr
해외 구인수요에 부합된 연수프로그램 제공, 해외우량 구인업체 발굴 등을 통해 해외노동시장 진출기회 확대
- 지원대상 : 만 15~29세 이하 청년층(경력이 필요한 경우 29세 이상 30퍼센트 가능)
- 연수기관 : 교육·훈련기관, 대학 등
- 지원내용 : 해외취업 연수비용으로 1인당 4백여만원을 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잡영플라자)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고, 인지도가 높은 민간 고용 서비스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청년취업 진로지원 사업
학생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특성화고·산업정보학교·마이스터고에 취업전문인력(취업지원관) 채용을 정부가 지원

통계청이 지난 6월 13일 발표한 우리나라 ‘5월 노동동향’ 자료에서 청년 실업률은 8퍼센트로 집계됐다. 청년 고용률은 41.1퍼센트. 매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과 고용률은 대략 이와 비슷하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중에 15~29세 청년 계층의 실업률을 통계로 낸 것이다. 청년층 가운데 주된 취업 연령인 25~29세의 5월 실업률은 7.2퍼센트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률 3.1퍼센트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일자리 도전에 실패한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니트족’이 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1년 15~34세 청년 인구 가운데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숫자가 1백만8천명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은 당사자에게도 큰 고통이지만,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진로목표 분명히 정해야 취업 보여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개인별로 취업 상담에서 실제 취업까지 집중적이고 특화된 지원을 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청년 실업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청년 고용사업 프로그램에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조캠퍼스 ▲대학청년고용센터 ▲청년취업 진로지원 사업(취업지원관)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 등이 있다.

실제 취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개인의 능력과 노력, 의지다. 대학생 직업컨설턴트이자 공모전 코칭 전문가인 이동조 씽굿 기획편집국장은 “매년 엄청난 수의 대졸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채용시장은 한계가 있다”며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는 좀 더 차별화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9일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구인기업과 취업희망 구직자를 현장에서 연결하는 ‘GET JOB 취업·창업박람회’가 열렸다. 청년, 여성, 노인 등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 취업과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많은 기업이 대규모 공채보다 소수 인원을 상시채용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적게 뽑되 준비된 인재를 뽑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대부분의 학생은 4학년이 될 때까지 취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간극이 발생합니다.

제가 말하는 ‘준비’란 토익점수나 학점 관리 차원을 넘어선 좀 더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취업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취업전략은 대학 1~2학년 때 자기의 적성을 파악하고, 그 분야에 맞는 경험과 도전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국장은 “막연히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많은 경험을 축적할수록 취업 성공의 기회가 높아진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업은 애정 갖고 오래 근무할 인재 원해”

“대학생 1백명 중 95명이 자기 직업에 대한 구체적 목표의식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학점 관리를 하거나, 영어학원에 다니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이른바 ‘스펙쌓기(구직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학점, 자격증, 토익점수, 경험 등을 합해서 부르는 말)’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이런 스펙은 남들이 다하는 기본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진짜 실력을 기르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명쾌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펙의 양’으로 승부를 겨루려고 하는 겁니다. 목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스펙만 있다고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를 잘 활용해서 먼저 자기의 적성을 파악하고 자기의 비전을 설정할 것을 권합니다.”

잡코리아 컨설팅사업본부의 황선길 본부장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 4학년이 되기 전까지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른다”며 “학교에서 직업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좀 더 일찍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의 설명이다.

“기업은 애정을 가지고 오래 근무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구직자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만의 목소리로 진솔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도 너무 일괄적인 인사시스템을 적용하지 말고, 숨은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에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실제 우리 회사는 자기 PR 코너를 운영해 지원자의 학교, 학점, 어학성적 등 사전정보를 받지 않고, 오직 5분간 자기 PR 발표를 통해 회사에 대한 열정을 평가하고 서류전형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G

글·이상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6월 11,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장에서는 KOTRA 글로벌 창업취업대전과 2012 저탄소녹색성장 취업박람회가 열려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두드리세요! 취업 노하우가 쌓입니다

11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취업박람회… 현장 채용 기회도

구직자들을 위해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관하는 취업박람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취업박람회는 참가기업에 대한 정보와 그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고 취업기회까지 잡을 수 있는 곳인데, 구직자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정보량과 활용도는 개인 차가 크다. 취업박람회를 취업으로 연결시킬 활용법을 알아본다.

"중국어로 지원동기와 중국에서 있었던 경험을 2분 내로 요약해서 말해보세요."

지난 6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 'KOTRA 글로벌 창업·취업대전'의 중국취업서류 컨설팅 부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중국 진출을 생각하고 이곳을 찾은 김모(28)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중국 전문 컨설턴트 유도영씨의 요청에 따라 중국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중간에 멈칫하기도 했으나 무사히 끝냈다.

"잘하셨다"는 칭찬에 이어 컨설턴트 유씨는 그에게 "영어도 잘한다죠. 그럼 영어로 자기 소개를 3분 이내로 해보시죠"라고 다시 주문했다. 김씨는 중국어보다 능숙하게 영어로 자기소개를 마쳤다.

컨설턴트 유씨는 김씨에게 중국 현지 기업보다는 다국적 기업에 지원, 중국 관련 일들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11~12일 이틀간 열린 KOTRA 취업·창업대전은 KOTRA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행사다. KOTRA와 관계하고 있는 국내외 업체들 중 채용계획이 있는 1백21개 기업이 참가했다.

KOTRA 고객미래전략실 유석천 과장은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한 채용 규모는 5백80명 정도"라고 예상하며 "3백명 정도는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이 이뤄졌고 미처 방문하지 못한 구직자들을 위해 박람회 사이트는 당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 능력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코엑스의 다른 전시장에서는 6월 11, 12일 이틀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2012 저탄소 녹색성장 취업박람회'도 열렸다.

취업박람회는 기업의 공채 기간에 맞춰 보통 5~7월, 9~11월에 주로 열린다. 올해도 5월부터 취업박람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7, 8월 휴가철을 건너뛰고 11월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취업박람회의 인터넷 사이트는 개최일 2~3주 전쯤에 오픈한다. 1주일 전부터 일반 및 언론을 통한 홍보가 활발하게 시작되어 각 대학교 관련 과 사무실이나 취업센터에도 포스터 등 홍보자료가 전달된다.

취업박람회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 참가 기업과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하고 세미나와 포럼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대부분 행사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컨설팅 여부, 세미나 참석, 면접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면접이나 이력서 등 컨설팅을 받으려면 오전에, 행사가 여러 날이라면 첫날 방문해야 여유 있다.

"박람회서 면접 보면서 노하우 쌓으면 도움"

취업박람회를 찾는 구직자들은 즉석에서 현장면접을 하기도 하지만, 사전접수를 통해 면접을 신청해놓을 수도 있다. 사전 면접도 크게 두 종류다. 먼저 구직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참가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 면접을 보는 '사전 면접 신청'이 있다. 또 구직자가 사전 등록 때 이력서를 함께 제출하면 취업박람회의 취업 컨설턴트들이 이력서 검토 후 적합한 기업과 구직자를 잠정적으로 연결시켜놓는 '사전 매칭컨설팅'이 있다.

KOTRA 취업·창업대전은 사전 면접신청을 받았고, 녹색성장 취업박람회는 사전 매칭컨설팅을 했다.

녹색성장 취업박람회 진행을 맡은 컨설팅업체 '스카우트'의 홍보담당 박경은씨는 "아무래도 사전 매칭컨설팅을 통해 기업 면접을 본 구직자는 취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며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므로 취업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면접을 보면서 노하우를 쌓는 것이 취업 확률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취업박람회에는 컨설턴트들이 상주하며 무료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컨설턴트들은 자기소개서에 대해 면접관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키워드를 정해 그에 맞는 사례를 들어 작성할 것을 권한다.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 취업박람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일정을 짜두는 것이 좋다.

취업박람회 일정

행사명	일정	장소	연락처
2012판교테크노밸리 채용박람회	6월 21일 오후 1~5시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	ptvjobfair.career.co.kr ☎02-2006-6151
2012 구로 일자리 박람회	6월 28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	guro.career.co.kr ☎02-2006-6131
2012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서울)	8월 14일	지하철 7호선 먹골역사	www.seouljob.or.kr ☎070-8184-3834
	9월 5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9월 14일	성동구청 광장	
	10월 10일	KBS 88체육관	
	10월 25일	신도림테크노마트	
	11월 1일	중계 근린공원	
	11월 22일	관악구청 강당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5월 15일 ~6월 30일		www.jobtogether.net/fair6 ☎02-6000-7509
2012 저탄소 녹색성장 온라인 취업박람회	5월 12일 ~7월 13일		www.greenjob.or.kr ☎02-2188-6891

스펙 상향 평준화 추세로 면접 중요도 높아져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최근 구직자들의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 면접 비중이 높으니 '면접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취업박람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다.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라도 취업박람회장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과 출력, 이력서 사진도 즉석 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면접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꼭 면접을 보고 싶다면 먼저 해당 기업 부스를 방문해 면접관에게 양해를 구한다.

명함도 준비한다. 자신을 표현할 내용을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넣어 명함을 만든다.

한운옥 예앤지 연구소장은 6월 11일 저탄소 녹색성장 취업박람회장에서 '성공을 이끄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란 강의를 통해 "취업박람회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고 그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스터디를 하는 것도 취업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G

글·강선임 객원기자 / 사진·김진티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평생 할 수 있는 일 찾아봤더니 취업”

자기 적성 파악하고… 여기저기 지원하기보다 선택한 진로에 집중을

고졸 학력으로 웹디자이너가 된 남창우씨, 자격증을 따 피부관리사로 취직한 유지선씨, 오랜 준비 끝에 판매지원 업무를 맡게 된 이치강씨.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 전선을 통과한 세 사람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취업 성공담을 통해 성공 비결을 알아보자.

이치강 (27 · 명지대 경영학과 졸업 · 대한항공 판매지원팀 근무)

진로를 먼저 정하고 적합한 기본스펙 준비

이치강씨는 어릴 적 창업을 꿈꿨다.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낼까’ 방법을 고민하는 게 재미있었다. 그래서 대학 1, 2학년 때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팔아봤다고 한다.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을, 시험 기간 허기진 학생들에게 야식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경험이 쌓일수록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감을 잡았다. “혼자 이익을 거두는 것보다 여럿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 일이 좋더군요. 그래서 창업보다 취업을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스펙’을 쌓기 시작했다. “아무리 개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지만 기본기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하고 학점을 높이려고 노력했죠.” 또 지원할 회사의 정보를 수집했다. “회사마다, 직종마다 원하는 인재가 다르잖아요. 적성과 하고 싶은 일을 따져 어느 회사에 지원할지 추렸어요.” 졸업하기 전 어떤 경험을 해봐야 할지,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그때부터는 학교 경력개발팀의 도움을 받았어요. 요즘 대학마다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명지대 경력개발팀에서는 이치강씨에게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천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무료인 데다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어학 실력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와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만반의 준비를 한 이치강씨에게 졸업은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졸업과 동시에 2011년 1월 대한항공에 입사해 현재 원하던 부서인 판매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다.

“비교적 쉽게 취직한 이유는 오히려 아무 곳에나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 같아요.” 이치강씨는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만약 어렵다면 지금껏 겪었던 일을 죽 정리해 보는 것도 좋아요.” ‘마구잡이’로 지원해서 설사 좋은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친구들을 자주 봤다고 한다. “면접을 거치면서 지원자의 마음가짐이 대부분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 대학 시절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조차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러스트 · 신용호

이치강씨의 취업 성공 팁 – 기본 스펙 · 경험 쌓기

대학 1~2학년, 하고 싶은 일 마음껏 경험하기! 대학 3학년, 진로를 결정하고 기본 스펙 갖추기! 대학 4학년, 희망 직무에 맞는 경험 쌓기!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실히 정하는 것. 직종을 정하고 나면 자기소개서에 흔히 나오는 질문 여러 개를 추려 혼자서 답해 봐도 좋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남창우 (23 · 고등학교 졸업 · 에이치비텔레콤 웹디자인팀 근무)

처음부터 조건 좋은 직장 고집할 필요 없어

남창우씨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건축 설계를 공부했지만 대학에 진학하며 전공을 자동차 엔진 관리로 바꿨다. 전망이 밝은 직업을 갖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아 한 학기 만에 그만뒀다. 군대를 다녀오고 2011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딱 잘라 말하지 못했어요. 마침 고용지원센터에서 적성검사부터 기술교육, 취업알선까지 원스톱 프로그램을 마련해 뒀더군요.” 웹디자인에 흥미를 느껴 6개월간 전문 교육을 받았다. 학생 때처럼 공부에 매진한 덕분에 교육을 마치자마자 입사 기회를 얻었다. 면접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일러스트 · 신용호

입사한 지 한 달째 되는 새내기 사회인 남창우씨의 꿈은 분명하다. “나중에는 디자인에서 관리까지, 제 손을 거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남창우씨는 취업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돈을 잘 벌 것 같다거나 남들이 많이 한다고 직업을 선택하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후회하게 되죠.” 특히 고졸 학력으로 취업하려는 후배들에게 “처음부터 조건 좋은 직장만 고집하지 말라”고 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전문성을 길러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졸자들보다 일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 4년 동안 경력과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곳에 취직하세요.”

남창우씨의 취업 성공 팁 – 끊임없는 배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취업이 쉬워진다. 교육비를 지원받아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구직자 수만큼 많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처음부터 까다롭게 직장을 고르기보다 성장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하기. ‘겉보기’나 ‘연봉’ 등에 치중하다 보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평생직장이 없어지고 평생직업의 시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

유지선 (22 · 전문대 졸업 · 석피부과 근무)

경험·기술 있다고 안심 말고 적극성 보여야

유지선씨는 대학 시절 전공을 살려 취업에 성공했다. 2년간 배운 피부관리 기술을 갈고 닦아 자격증까지 취득한 덕분이다. “요즘 피부관리 분야가 전망이 좋고 인기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거든요. 일단 자격증을 갖춰 남들과 차별화하려 했죠.” 고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5개월간 학원에 다녔다. 그 사이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을 쌓아 언제든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했다.

올해 2월부터 여기저기 원서를 넣어보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연락조차 잘 안 와서 처음에는 크게 실망했어요.” 그러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원서를 내고 전화를 걸어 한 번 더 저를 소개했어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유지선씨는 면접에서 성실함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어떤 직장이든 오래 일할 사람을 찾잖아요. 먼저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나서서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취직은 어렵지 않아요.” G 글 · 김효정 기자

일러스트 · 신용호

유지선씨의 취업 성공 팁 – 성실한 구직자

경험과 기술을 갖췄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노련한 구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면접 때 보여준다면 성실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 원하는 직장에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는 누구나 여러 번 떨어지는 아픔을 맛본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열린 채용' 도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영철 사장

"틀에 박힌 답을 버리니 인재를 얻었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년부터 서류전형에서 학점, 영어점수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인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열린 채용' 방식을 도입했다. 복잡해지는 금융시장 변화에 적응하도록 국가 자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려는 회사의 목표에 발맞춘 것이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우리나라 금융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캠코에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며 "창의성, 도전 정신, 협동심을 갖춘 인재를 계속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 신입사원들이 몇십 년 후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인재가 될 겁니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열린 채용'으로 뽑힌 사원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장영철 사장이 인터뷰 내내 강조한 단어는 변화와 도전, 다양성, 그리고 배려였다. 6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캠코 본사에서 이뤄진 인터뷰는 캠코의 열린 채용 얘기부터 시작해 캠코의 역할과 비전, 우리 사회가 튼튼해지기 위한 방안까지 다양한 주제로 뻗어나갔다. 장영철 사장은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바꾸는 일은 회사의 미래를 바꾸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어떤 덕목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캠코의 열린 채용은 '스펙' 대신 인성과 능력,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합니까?

"착실하게 점수를 쌓아 '스펙'이 좋은 사람이 필요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캠코는 탄력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과감히 도전하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캠코 지원자들은 답이 정해지지 않은 논술시험을 칩니다.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묻는 인문학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합숙 면접을 치릅니다. 토론 면접이나 발표 면접은 물론 개인의 가치관과 도전 정신, 창의력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시험을 거칩니다. 1박2일 일정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지원자들의 반응이 좋더군요. 자신을 표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채용방식이 실제로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까? 캠코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의 면면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대부분 경제,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입사했습니다. 지금은 건축학, 법학,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이 입사해요.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시험을 버렸더니 자아가 뚜렷하고 판단력이 있으면서 대담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소수자가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고졸 지원자도 능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캠코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한명 한명 인성과 능력을 충분히 관찰하고 가능성을 가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채용방식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캠코는 IMF 외환위기 때 부실채권 1백11조5천억원을 인수해 정리, 회수하고 금융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일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밖에 모르는 모범생은 캠코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 거기다 요즘 캠코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꿔드림론' 같은 신용 회복 프로그램이 대표적이죠. 공익을 생각하고 서민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 방식을 바꾼 이유는 바로 캠코의 이런 역할 때문입니다. 현재 벌어지는 일만 해결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미래 캠코와 캠코가 관리하는 국가 자산 전반을 책임지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뽑고 싶었습니다. 워낙 청년 취업이 문제다 보니 '열린 채용'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단지 국가 정책에 맞추기 위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 인재 채용 방식을 바꾸는 일이 꼭 필요했습니다."

어떤 인재가 캠코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까? 그 인재들과 더불어 캠코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리더십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여기서 리더십은 카리스마 있는 통솔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줄 알고 동시에 협력할 줄 아는 인재입니다.

그 재능 중 하나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중 채무자의 빚은 한 은행에서 이자를 낮춰준다고 해결되지 않죠. 빚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야 빨리 갚고 다시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캠코의 가계 자산 관리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로' 빚이 없어질지 생각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깨끗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캠코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신장 같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위기는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캠코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위기를 이겨낼 겁니다. 우리 신입 사원들이 있다면요.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 자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G

글·김효정 기자 / 사진·성실한 기자

신입사원 입사 후기

"1박2일 합숙 면접 잊을 수 없어요"

캠코의 신입사원 박건희(왼쪽)씨와 채수정씨는 "진짜 실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캠코에 입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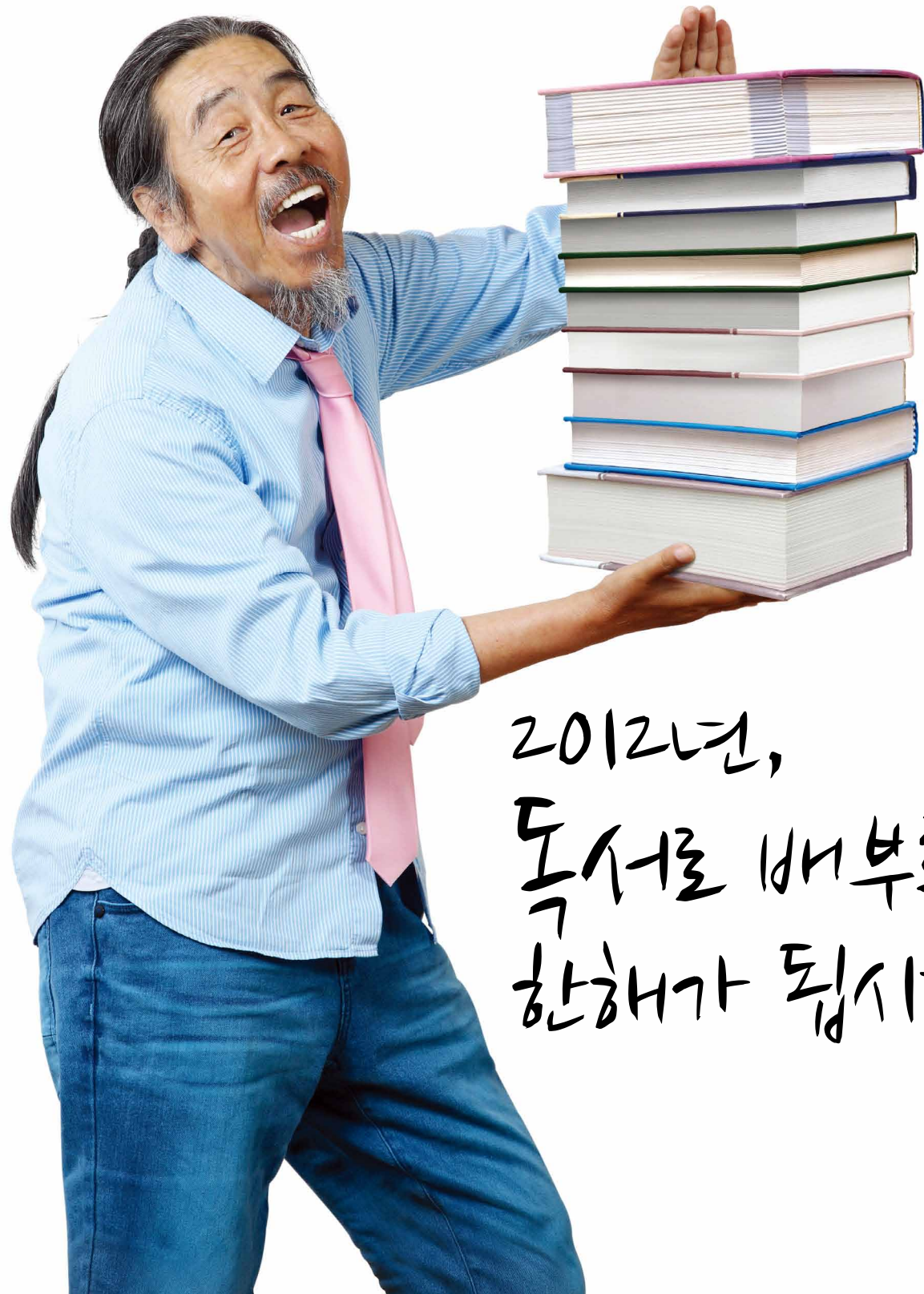
"전공도 경험도 다른 동기들이 하나같이 참신하면서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올해 캠코에 입사한 국유정책실 채수정(26)씨와 서민금융부 박건희(28)씨는 캠코의 신입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고 싶다'는 목표의식,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업무에 백분 활용할 수 있게 성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정씨는 국민대 건축학과를 졸업하자마자 캠코에 입사했다. 박건희씨는 경북대 법학과를 다니며 오랫동안 고시 준비를 하다가 진로를 바꾼 경우다. 채수정씨는 "처음부터 캠코를 마음속 가장 가고 싶은 회사로 결정해뒀다"면서 "아르바이트와 인턴십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인간관계를 다졌다"고 말했다. 반면 박건희씨는 "시험에 떨어진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성찰하게 됐다"고 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되짚어보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됐다는 얘기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면접날 제 옆에 서울 명문대를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면접관의 질문에 제가 들어도 의욕 없는 대답을 했죠." 박건희씨는 "캠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채수정씨는 "스펙을 쌓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의 가능성과 적성을 깨닫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기 중에는 무술에 특기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많은 곳을 여행한 사람도 있다"며 "남들 하는 대로 해서 얻는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1박2일 합숙 면접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다고 입을 모았다. 박건희씨는 "합숙 면접 때 지원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려 마술쇼를 준비한 것을 보고 캠코가 사람을 아끼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고, 채수정씨 역시 "캠코 창립 50주년 기념패를 만들라는 합동 과제에서 각자의 아이디어에 감탄하고 웃으며 의견을 모았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힘들 법한 채용 과정도 즐기는 신입사원들은 벌써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책임 있는 일을 맡아 즐겁다"는 박건희씨는 "어려운 과제도 '어떻게 해결할까' 즐기며 헤쳐나가는 인재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채수정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20분, 1년 12권의 책을 읽자!

2012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광고 공모전 (6.18~8.7)
▶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
▶ www.mcst.go.kr [알림마당]

일러스트 · 이철원

기획특집

어제의 희생을 기억하기에 내일의 평화를 기약합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생사를 같이했던 전우야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로 시작되는 가요 '전우가 남긴 한마디'다. 허스키한 음색의 여가수가 부른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알 수 없는 슬픔과 감동에 먹먹해지곤 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는 부분에서는 눈물까지 글썽였던 기억이 난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62년이다. 최근 들어서는 6월이 돼도 좀처럼 이 노래를 들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하는 문화 선진국으로 성장한 데는 '꽃잎처럼 떨어져간' 선열들, '죽어서도 조국을 지키겠노라'던 선배들의 희생과 나라사랑 덕분임을 잊지 말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종로구 대동세무고등학교 학생들이 모교 출신 6·25 참전용사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이라는 의미의 '동심결(매듭)'을 달아드리고 있다. 육군은 6·25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출신 학교에 증정하고 있기도 하다.

'조국 위한 희생'… 국가는 끝까지 책임진다

참전용사에 새 집 마련 등 민·관·군 힘모아 다양한 보훈행사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방부는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국가안보를 다지기 위해 세 가지 키워드의 행사를 마련했다. 6·25 참전자의 희생에 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국방부의 의지를 담은 '신뢰와 기억', 선배 전우들의 희생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확고한 안보 태세 확립',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추구하는 '동참'이 그것이다.

경기도 철원에 거주하는 선택제(82)씨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다. 그는 서울 영등포공고 재학 중 피란지 부산에서 학도의용대에 지원했고, 미 7사단 카투사로 선발돼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전투에 참전했다. 지난 5월 25일 북한에서 발굴된 국군 유해 12구가 62년 만에 귀환했는데, 이들 역시 미 7사단 소속 카투사였다. 유해가 발굴된 곳도 함경남도 개마고원에 위치한 장진호 부근이었다.

선씨는 장진호전투에 참전한 유엔군 1만여 명 중 한 사람이다. 장진호 전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힌다. 10배나 많은 중공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맞서 싸웠던 이 전투에서 유엔군 3천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이 중 카투사가 8백75명이었다.

'나라사랑보금자리' 사업 올해 58가구 추가

선씨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이후 철원에 정착한 그는 부인 염춘자씨와의 사이에 4녀를 두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딸들이 모두 출가한 후 부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흙집에서 살았다. 장마철이면 비가 새고 겨울이면 방 안의 물그릇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집이었다. 게다가 문턱이 높아 팔순 넘은 노부부가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육군이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의 하나로 노부부의 집을 편안하고 깔끔한 현대식 주택으로 신축해 주었다.

6·25 참전용사 선택제씨의 다 쓰러져 가던 집이 육군의 '나라사랑보금자리' 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집으로 신축됐다.

'나라사랑보금자리' 사업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집을 개축하거나 신축해 주는 사업이다. 육군과 KBS,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고, 민간 기업(삼성전자, 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T&G, 계룡건설, 기아자동차, 강원랜드 등)이 후원하는 이 사업은 2011년에 시작돼 2012년 6월 현재까지 76가구가 혜택을 보았다. 연말까지 33가구가 추가 지원돼 '새 집 마련'의 혜택을 볼 예정이다.

제주서 6·25 참전 전우 위한 보훈행사

3월 공사에 들어간 선택제씨의 집은 40여 일 만인 지난 4월 30일에 완공됐다. 선씨는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늘 불안했는데 이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조국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잊지 않고 챙겨줘 고맙다"고 말했다.

가구당 5천만~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 사업은 민·관·군이 함께하는 '감동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조국을 위해 위국헌신한 분들을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신념으로 '나라사랑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계신 참전용사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올해 '나라사랑보금자리' 사업 외에 나라사랑운동, 제주도민과 국군이 함께하는 행사 등 다양한 호국보훈 행사를 진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나라사랑운동은 육군 장군단이 모교를 방문해 나라사랑 마음 교육을 실시(5월 15일~11월 30일)하고, 6·25 참전용사들이 계룡대를 방문해 홍보영상 관람과 더불어 병식(兵食) 체험을 하는 등 현장 견학(6월 1~29일)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6월 21일에 열리는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제주시 방일동), 6·25 참전용사 모교 명패 증정식(서귀포 대정초교), 무공훈장 수여식 등의 크고 작은 기념식을 같은 날 일제히 진행하는 행사다.

무공훈장 수여식은 6·25전쟁 때 훈장을 받았지만 직접 받지 못한 50명의 참전용사들을 위해 뒤늦게나마 훈장수여식(한라대)을 거행하는 행사다. 육군인사사령부 이용정 중령에 따르면 수훈자 50명 중 생존자는 3명에 불과해 고인이 된 47명의 수훈자는 유가족이 대신 훈장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들 47명의 고인은 현재 제주 곳곳의 충혼묘지에 묻혀 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수훈자는 물론 그 가족과 참모총장이 함께하는 만찬이 한라대 식당에서 열린다. 또한 저녁에는 수훈자 가족과 보훈단체, 제주도민과 학생 등 8백여 명이 참석하는 군악연주회가 한라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이 연주회에는 연예사병으로 복무 중인 가수 민경훈(버즈)씨와 신옥철(아웃사이더)씨가 특별출연해 히트곡 '겁쟁이'와 '외톨이'를 부를 예정이다. 육군 제대군인지원처장 남응우 준장은 "제주도민과 육군이 함께하는 호국보훈 행사이자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군 합동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기

해군과 공군도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시킬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해군은 보훈 감사주간(6월 7~14일)을 정해 놓고 대전보훈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위문하는가 하면 형편이 어려운 보훈 가족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호국안보주간(6월 15~30일)에는 6·25전쟁 주요 전투 소개 방송,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초청행사, 주먹밥 또는 비상식량 취식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제1연평해전 전승기념행사(6월 15일)'와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6월 29일)'도 진행한다.

공군은 참전용사와 북한 이탈주민을 초빙해 장병들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육군·해군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는 태극무늬와 파랑새, 새싹 등을 형상화한 형태인데, 태극무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심'을,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각각 상징한다고 한다. G

글·서철인 기자

지난 6월 1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용인 일대 야산에서 발굴한 국군전사자 3구의 유해를 운구하고 있다. 13만여 명의 실종자 중 지금까지 수습한 유해는 5퍼센트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북한과 비무장지대에도 3만~4만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지막 한명까지… 올들어 5백43구 찾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경기 용인 일대서 최근 두 달간 53구 발굴

김일성의 적화야욕에서 비롯된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3년간의 전쟁으로 국군 14만9천명이 사망했고, 13만2천 2백명이 실종됐으며, 9천6백명이 포로가 됐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 책임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60년 한(恨)을 풀어주는 숭고한 호국보훈 사업이기도 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어느 이름 모를 야산에 한 무리의 기자들이 도착했다. 나지막하게 펼쳐진 산 능선에 올라서자 등산로를 경계로 남쪽으로는 향린동산이라는 전원주택단지가 있고, 북쪽은 용인 삼성 에버랜드의 부지임을 알리는 철조망이 둘러쳐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곳 야산 일대에서 지난 2개월 동안 53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다.

국군 전사자 유해가 발굴된 이곳 용인 야산 일대는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1950년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은 북위 37도 선까지 일시적인 후퇴를 했다(일명 1·4후퇴). 이후 유엔군이 반격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기도 광주, 수원, 용인 등지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특히 이번에 53구의 국군 유해가 발굴된 향린동산 야산은 미 1·9군단이 한강 이남 선까지 진격하는 '썬더볼트 작전'(1951년 1월 25일~2월 18일) 중 국군 1사단 15연대와 중공군 150사단 448연대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된 지역이다.

문화재 발굴 기법에 따라 과학적 진행

2000년부터 시작된 국방부의 유해발굴 사업은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연인원 10만명이 동원되어 지금까지 6천5백42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백43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발굴 현장 한쪽에는 유해발굴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와 실제 발굴된 전사자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최첨단 장비에서부터 낫, 호미 같은 농기구까지 다양한 장비가 사용되고 있었다. 현재 국방부는 유해발굴 사업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전사자종합정보체계(KIATIS)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발굴과장인 주경배 중령의 설명이다.

"유해발굴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항이 전산으로 입력되어 본부와 정보가 공유됩니다. 발굴 전 먼저 주변 지형이나 발굴지의 상태를 입력하고, GPS를 이용해 발굴 지점의 최종 위치를 기록한 후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갑니다.

유해가 발견되면 사진과 도해로 컴퓨터에 기록합니다. 유해발굴 사업의 최종 목적은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해 훼손과 DNA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감식단 부대원들은 마스크와 수술용 장갑을 끼고 유해를 다룹니다."

주 중령은 "발굴지에서 유해가 발견되면 지역 사단에서 지원된 일반 발굴병사들은 곧바로 작업을 중단하고, 그때부터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전문가들이 투입된다"며 "감식반은 사학, 고고학, 인류학 등을 전공한 전문 발굴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국 1백55개 전투지역 유해 지도 만들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며, 신원 미확인 유해는 정밀 감식을 위해 3~4년간 별도로 보관한 후 국립서울현충원 충혼탑에 임시 안치된다. 유해발굴지에서는 북한군이나 중공군 같은 적군 유해도 같이 발굴되기도 하는데, 이들 유해는 인도적 차원에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군묘지에 매장한다.

주경배 중령은 "유해발굴을 위해 어느 지역과 지점을 굴토할지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며 "유해발굴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6·25전쟁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군인들의 증언과 지역주민들의 제보"라고 말했다.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전사(戰史)를 찾아 대조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전투 흔적이나 유해가 있을 만한 교통호, 개인 참호 등을 찾는 작업을 한다고 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미 정밀 조사와 탐사를 통해 전국 1백55개 주요 전투지역의 유해소재 지도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유해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주 중령의 설명이다.

"강원도에서 발굴을 진행할 때 어느 돌산 정상에서 유해가 흙에 묻히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투 현장이 너무 치열해 적을 쫓거나 후퇴하는 과정에서 전사자의 시신을 미처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땅에 묻힌 유해도 겨우 한 뼘 정도 깊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해를 발굴할 때는 1미터 간격으로 구획을 정하고 나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표토층을 파봐야 합니다. 금속탐지기도 사용하지만, 인체의 뼛조각을 탐지하는 장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파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사자 유해발굴에 사용되는 장비와 실제 발굴된 유품들. 발견된 국군 유해는 사진 왼쪽에 보이는 오동나무관에 입관한 후 태극기로 감싸 정성과 예를 다해 운구한다.

용인 일대처럼 유해발굴 지역이 높은 산이 아니거나 도심과 가까울 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 강원도처럼 발굴 현장이 험준한 산속일 경우는 4시간 이상 산을 올라 현장에 도착하고, 겨우 몇 시간 발굴하고 다시 내려오는 고된 과정을 몇 달 동안 반복해야 한다고 한다.

전사자 친인척들의 유전자 채취 도움 절실

"지금도 매일 1천명이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선배들(전사 국군)을 찾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숭고한 호국보훈 사업에 임하는 유해발굴감식단의 자부심은 어느 부대보다 높습니다.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3만명의 호국용사를 마지막 한 명까지 찾을 때까지 유해발굴 사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 중령은 "60년 만에 애써 찾은 국군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사자 신원파악을 위해서는 유가족의 유전자와 대조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가족들이 DNA 시료 채취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 중령은 "6·25 전사자 가족은 친가·외가의 8촌까지 가까운 보건소나 군병원에 가서 DNA 시료 채취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료 채취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국방부가 5만원 상당의 무료건강검진을 제공한다.

글·이상흔 기자

문의 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

2012 대학생 호국순례 참가자들이 6월 1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을 둘러보고 있는 동안 북한 경비병이 사진을 찍고 있다. 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 호국순례 행사가 열렸다.

“우리가 처한 냉엄한 현실 절실하게 느껴”

한미연합사 · JSA · 제3땅굴 방문… “유익한 경험 했다”

우리의 젊은 대학생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공동경비구역(JSA)과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찾았다.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미연합사령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2 대학생 호국순례’를 통해서다. 대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남북한 대치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대부분 대학이 시험기간 중임에도 행사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판문점이었어요. 북한 병사들이 우리를 보고 사진 찍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의 비무장지대에 있는 공동경비구역(JSA)을 난생처음 방문한 대학생 이모(27·남·연세대)씨는 “북한 병사들의 눈에 우리가 신기해 보였나봐요. 무섭다기보다 황량하게 느껴지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를 포함한 서울 지역 남녀 대학생 60여 명은 6월 13일 하루 동안 서울 용산구의 한미연합사령부, 제3땅굴, JSA 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과 제3초소, 도끼만행사건 현장, 도라산 전망대 등을 돌아보았다.

5차례에 걸쳐 52개 대학 4백여 명 참가

이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미연합사령부와 공동으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한 대학생 특별견학인 ‘2012 대학생 호국순례’ 3회째였다.

‘젊음과 열정으로 같이 갑시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순례 행사는 대전, 수원, 광주, 서울, 인천, 청주지역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52개 대학에서 4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13일 순례행사에 참여한 박모(21·한양여대)씨는 “흔히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땅굴은 안쪽으로 한 4백미터쯤 걸어들어간 것 같아요. 천장에서 물방울 같은 게 뚝뚝 떨어지는 으스스한 곳이었어요. 신분 확인을 거친 후 JSA에 들어서니 남북한의 경계를 알려주는 것은 흰색 말뚝뿐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곳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이었는데, 회의장 안에서 남북을 가르는 것이 15센티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라는 게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그는 북한 병사들에게 손짓을 하거나 대화하면 안 된다고 미리 듣고 갔는데, 북한 병사들이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좀 무섭기도 했다면서 “뭔가 다른 세상이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기쁘게 참가 신청”

사실 6월은 대부분 대학들의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대학생들 입장에서 아침 8시반에 시작해 저녁 무렵에 끝나는 순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부친이 직업군인이라는 이모(18·한양여대)씨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평소 국가안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고, 기회가 되면 JSA에 가보고 싶었다”면서 “마침 학교 홈페이지에 호국순례 행사 모집 공고가 뜬 것을 보고 기쁜 마음에 시험기간인데도 신청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13일 순례 행사는 특히 한미연합사 제임스 서먼 사령관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한미연합사령부의 브리핑장에 나타나 대학생들에게 평화 유지의 중요함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해 어느 순례 행사보다 특별했다.

박승훈 국가보훈처장은 브리핑에 앞서 가진 격려사에서 “호국의 정신을 바로 알기 위해선 한국 발전의 기틀이 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호국순례 행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우리의 냉엄한 현실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깨닫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먼 사령관은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처럼 역동적인 나라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은 이러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이라고 환영사를 시작했다.

6월 13일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은 대학생 호국순례행사 참가자들이 브리핑을 들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서먼 사령관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조지 산타야나의 말을 인용하며 “지금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것은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을 기억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어 우리를 대체할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면서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go together)”라고 하며 동반자로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동안 언론서 접했던 사실 입체적 확인”

이날 순례 행사에 참석한 천모(25·광운대)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치긴 했지만 직접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보고 판문점에 가서 북한 병사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순례 행사를 통해 우리가 놓인 냉혹한 현실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제게는 가장 인상 깊은 곳이 한미연합사령부와 판문점이었습니다. 브리핑 중에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실무자들의 설명을 듣고 보니 그간 언론을 통해 접했던 것과 달리 한층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도끼만행사건 현장, 북한의 선전마을 등을 돌아보면서 우리 현실을 결코 안일하게 여길 수 없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6월 26일 마지막 호국순례를 마친 후 후기 콘테스트를 열어 이번 호국순례가 대학생들이 우리의 안보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호국의지를 다질 수 있는 행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

글·박경아 기자

1969년 남편 순직 후 4남매 훌륭히 키운 김화주씨

"너무 힘들 땐 아이들 자는 얼굴을 봤죠"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와 함께 34년간 '장한어머니상'을 제정해 수상해왔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대신해 훌륭히 자녀를 키워 사회의 모범을 보인 여성들을 치하하기 위해서다. 올해 장한어머니로 선정된 김화주(73)씨는 홀몸으로 4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다. 국립현충원과 독거노인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편이 남겨준 선물 같은 아이들과 함께 지금 누리는 행복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남편이 훈련 도중 순직한 후 40년 넘게 혼자 힘으로 4남매를 훌륭히 키운 김화주씨는 "이제 남은 생은 전몰군경 유족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주씨는 처음에는 "살아온 얘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에 "다들 그런 것처럼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4남매, 손자 손녀와 함께 찍은 단란한 가족사진 앞에 서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은 1969년, 훈련 중에 순직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예요. 3학년, 1학년, 그리고 젖먹이. 그렇게 넷과 저만 남았어요. 지금도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일이 힘들지만, 그때는 더 그랬죠. 그래도 마침 일을 주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시내버스 회사였는데, '입금원 일을 해보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겠다고,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당장 아이들 밥줄 돈이 없어 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저는 무남독녀예요. 시아버지는 아이들 아빠만 데리고 월남했고요.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딸린 자식만 4명인데 누가 제 재정보증인으로 선뜻 나설까요." 굶는 것도 힘들었고 도움을 구하려 고개를 숙이는 일도 낯설었지만 희망이 없다는 사실만큼 김화주씨를 좌절케 한 일은 없었다.

희망이 있었기에 좌절 이겨내

"이대로 산다면 과연 좋은 날이 오기는 할까. 엄마가 힘들까봐 배고프다는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보니 되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고, 막막하고. 단지 힘들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화주씨는 약국으로 가서 수면제를 사들고 아이들과 손잡고 한강 어귀에 섰다.

"큰딸에게 물었어요. '그냥 우리 여기서 죽어도 괜찮지 않을까?' 딸이 울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만 살아 있었다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지? 아빠 만나러 가자.' 결심을 굳히고 나서도 한참을 우는데 셋째 딸이 조용히 제 손을 끌어 잡았어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게. 법관이 돼서 엄마같이 어려운 사람 없게 할 테니 죽지 말자.' 집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쓸면서 남편을 생각했죠. 그리고 해가 뜰 무렵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단숨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내뱉은 김화주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회사에는 격일로 나갔어요. 남은 날에는 보따리를 머리에 지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살던 시절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못하겠다 생각이 드는 날이면 자는 아이들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우리 부부가 남긴 증거가 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이 크면 저와 남편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걸 이해해줄 거라 믿었어요. 일찍 거둔 남편의 목숨은 다른 사람, 우리나라를 위해 쓰인 것이라는 점도요."

4남매는 김화주씨 삶의 원동력이자 기쁨이었다. 올해 54세인 큰딸 원춘남씨는 미국 휴스턴에서 요리공부를 했고,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딸 경란씨는 바이올리니스트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음대를 졸업한 경란씨는 셋째딸 혜욱씨와 성격이 딴판이라고 한다.

4남매는 삶의 원동력이자 기쁨

경란씨가 여성스럽다면 인하대 법학 교수로 있는 혜욱씨는 털털한 편인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재원이다. 막내아들 승호씨도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공부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훌륭하게 자랐지만 김화주씨가 '장한어머니'가 된 건 이 때문만은 아니다.

"사위들도 가끔 저더러 '엄마'라고 불러요. 다같이 모인 자리마다 저절로 흐뭇해지는 건 아이들이 정말 착하게 자라줬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알고 형제간 우애를 소중히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요. 진짜 '가족'을 키워냈다는 게 행복해요." 김화주씨의 네 자녀는 아버지가 순직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애국을 실천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아이들 얘기에 미소가 떠나지 않던 김화주씨의 표정이 다시 흐려졌다. "제가 아이들 키우며 먹고 사느라 힘들던 와중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가 그리워요. 그래서 저는 미망인회의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친정어머니에게 잘해드리지 못해 새로운 어머니들을 보살피려 노력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 찾아가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국가보훈처는 김화주씨에게 상을 주며 '남편을 조국에 바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자녀를 훌륭히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화주씨의 봉사정신을 높이 사며 타의 귀감이 된다고 알렸다.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부디 하늘에 있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니(미망인)들을 모시고 제가 지금 누리는 행복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김화주씨는 6월 20일 늘 그래왔듯 다른 전몰군경 미망인들과 함께 연고 없는 국군용사들의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G

글·김효정 기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주관하는 제34회 장한어머니상 시상식이 6월 4일 열렸다. 올해 수상자는 김화주씨를 포함해 19명이다.

장한어머니상

올해 19명 등 1979년부터 5백91명 수상

국가보훈처는 1979년부터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와 함께 '장한어머니상'을 제정해 표창해왔다. 올해까지 5백91명이 장한어머니상을 받았는데 상이군경회에서 매년 1~2명씩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었지만 훌륭히 가족을 지킨 여성들이다. 전몰군경미망인회 강정자 서무부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훌륭히 자녀를 키워낸 노고를 인정하고 높이 기리려 상을 제정했다"며 "동시에 유가족과 미망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의 유지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올해는 19명이 장한어머니상을 받았다. 김화주씨뿐 아니라 1953년 금화전투에서 전사한 남편 고 신종대 중위 대신 아들을 키우며 봉사활동을 해온 박두삼(79)씨나 1950년 서남부전투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전몰군경 유족을 보살피고 보훈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애국정신을 실천해온 이경희(65)씨가 포함돼 있다.

강정자 서무부장은 장한어머니상이 호국보훈 정신을 잇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46용사의 모교 후배들로 구성된 청소년 해양수호대원들이 해군 2함대에 거치된 천안함 앞에서 선배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저도 서해 지키는 해군이 되고 싶어요"

천안함 46용사 고교 후배 43명, 2박3일간 '해상작전 체험'

천안함 46용사의 고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한 '제2회 청소년 해양수호대 해상작전 체험' 행사가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개최됐다. 해군본부가 주관하고 천안함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천안함 46용사의 모교 29개교에서 추천받은 고교생 43명이 참가했다. 선배 용사들의 직무를 맡아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발한 당시의 긴장감과 해상작전의 어려움을 체험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지난 5월 고(故) 민평기 상사님의 후배 되는 자격으로 천안함 추모 행사 및 청소년 해양수호대 활동에 참가하겠냐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모의고사 일정을 앞둔지라 조금은 고민했지만 많은 친구들 중 선택받았다는 생각에 또한 선배님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천안함 추모 행사이기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유병욱군의 '소감문' 중에서)

유병욱(부여고 2년)군을 비롯해 전국에서 온 고교생 43명은 6월 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에 집결했다. 이들은 천안함 46용사의 모교인 전국 29개 고등학교에서 '제2회 청소년 해양수호대 해상작전 체험'에 참여할 대원으로 추천받은 학생들이었다. 지난해 천안함 46용사 1주기를 맞아 처음 열린 이 행사는 참가했던 학생과 학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행사는 이 같은 호응에 힘입은 천안함재단과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천안함재단·유가족 요청으로 행사 마련

참가 학생들은 2함대 내 서해수호관에서 간단한 교육과 브리핑을 받은 후 사건 당시의 참상이 고스란히 보존된 천안함을 견학했다. 유병욱군은 "천안함을 밑에서 봤는데 내장이 찢겨진 듯 튀어나와 엉켜 있는 전선들을 보고 당시의 심각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고 문규석 원사의 고교 후배인 정상원(부산 금정고 2년)군은 "몇천 톤이나 되는 군함을 한 번에 자르는 어뢰의 파괴력에 또 한 번 놀랐으며 이런 무책임한 도발에 너무나도 화가 났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안함을 견학한 학생들은 4일 오후 천안함의 모항인 평택의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후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PCC)인 제천함에 승함했고, 전투 배치 훈련을 받았다. 함정생활과 해상작전 체험이 시작된 것이다.

훈련 후 백령도 위령탑·대전현충원 참배

"주변 해역에 적 잠수함 활동 중! 총원 전투배치!" 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전투배치 명령이 떨어지자 제천함 승조원들이 일사불란한 동작으로 임무별 행동절차에 돌입했다. 사전에 임무를 부여받은 43명의 학생들은 짝을 이뤄 함미 부분으로 재빨리 이동했다.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에 학생들의 얼굴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 안경환 상사의 고교 후배인 박상민(인천제일고 2년)군은 사정거리 16킬로미터의 함포인 71포에 배속돼 장전수 임무를 맡았다. 훈련이 끝난 후에는 기관조종실(MCR)에 배정돼 2시간 동안 당직을 섰다. 기관조종실은 발전기, 가스터빈, 디젤엔진 등을 관리하는 함정의 심장부다.

박군은 "기관조종실에 들어가 보니 장비들이 많아 복잡해 보였다"며 "직접 당직을 서보니 '매일 해군 아저씨들이 밤낮없이 나라를 지키느라 피곤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문을 통해 밝혔다.

학생들을 태운 제천함은 다음날 백령도에 입도했다. 함정에서 내린 학생들은 서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연화리 산정에 우뚝 서 있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동판에 부조로 새긴 용사들의 얼굴 조각상 하나하나를 살피며 눈물을 훔치거나 눈시울을 붉히는 학생들이 많았다. 박상민군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님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 해군이 용감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살짝 났다"고 말했다.

일정 마지막 날인 6월 6일 현충일에는 천안함 46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천안함 용사들의 유가족을 만났다. 정상원군은 "아들의 묘비 앞에서

청소년 해양수호대원들이 제천함 관계관으로부터 3·26 중기관총의 조작 요령과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중기관총은 고(故) 민평기 상사 어머니가 해군에 기증한 것이다.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고 했다.

정군은 이번 행사 후 적어낸 소감문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보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나중에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해역을 사수하는 멋진 해군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체험은 "목표 없이 살아가던 나를 자극시켰고 애국심도 더 키워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안경환 상사의 유가족을 만난 박상민군 역시 "슬퍼하는 유가족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며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했다. 박군은 소감문에서 "나중에 꼭 해군에 지원해 천안함 용사들처럼 조국의 영해(領海)를 수호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국을 위해 목숨도 바치는 사람 될래요"

유병욱군은 "2박3일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 배운 점이 많다"며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유군은 '존경하는 민평기 선배님을 포함한 46용사 모두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기를, 그리고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감문에 적었다.

해군본부 오세성 소령은 "'청소년 해양수호대 해양작전 체험'은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해양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회성 행사로 기획됐으나 학교나 학생들의 호응이 높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서철인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고국서 고생하는 당신 생각이 더 납니다"

국가기록원, 보훈의 달 맞아 6·25전쟁, 베트남전쟁 기록물 공개

국가기록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서 수집한 병사의 편지 등 기록물을 일부 공개했다. 편지에는 전선에서의 긴박했던 순간과 함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랑, 애틋한 정이 담겨 있다. '2011년 민간기록 조사위원' 1백84명을 위촉,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기증자의 벽' 조형물을 설치, 기증자의 이름을 새겨 그 마음을 기릴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기록물 일부를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6·25 때 한 군인이 장인·장모에게 보낸 편지

병모님 전상서

무정세월 유수와 같이 흘어 산천초목도 일시적으로 변하여 백설이 날리는 엄동지절에 그간 병모님과 병부님의 기체후 일양만건하오시며 처남들도 다 잘 있어온지요. 그리고 가내 제절이 무사태평하오신지요. 금일의 필을 돌고 병모님 전에 일자 소신을 원문코자 하는 바입니다. 여하나 이곳저곳 병모님의 염려하신 덕택으로 일신무고하게 맡은 군무에 노력하오니 저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일전에 편지는 방가히 잘 바다보아섭니다. 그 진작 답장을 할아 하엿는듸 차일피일 은저와서 재송합니다.

만하나 용소하여 주십시오. 지금우로부터는 자조 소식을 전하게섭니다. 그리고 저에 이모아재시의 주소를 좀 적으보나주시면 감사하게 섭니다. 할말은 만사오나마 차후로 미루고 보이지 안는 이곳의 저 병모님의 몸이나 건강하시기를 축복하면서 금일은 이만 필을 로케섭니다.

학성 올림

※병모 : 빙모의 방언(경남)

베트남전 맹호부대 소속 대위의 편지 1

순영 아가씨 보우

오늘은 내 방을 소개하겠어요. 우석 책상, 의자, 철침대, 메트레스, 홋이불, 모포, 모기장, 세수대, 항시 어름물을 먹을 수 있는 아이스박스, 캐비넷, 달력, 옷 넣는 궤짝, 모기약, 전등, 책상 위에 선풍기 모두가 미군물자니까 일유 고급 호텔이 부럽지 않다오.

그중에 당신이 준 라이타, 시계(손목) 그리고 집에서 사온 책과 일기장, 편지지, 이곳에서 받은 몇 권의 책 등등. 한 방을 둘이서 사용하는데 옆에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한국에 귀국하는 본부중대 부관인 황호신 중위가 테레비와 녹음기를 틀어주어 구경은 잘하고 있다오. 내 환경이 이렇게 좋고 보니 고국에서 고생하는 당신 생각이 더 나는군요. 이래서 월남을 다녀간 사병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투 부대는 이 시간에도 베트공을 찾아서 산속을 헤매고 밤새도록 비행기가 왔다갔다 하며 조명탄 포탄 총성이 울린다오. 나는 그런 부대에 물자를 지원하는 부대에 근무한다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덕으로 열심히 또한 충실히 내 능력을 다하여 일하기로 했다오.

여보! 우리 형편이 좀 피어나기까지는 참고 살아갑시다. 당신과 내가 서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겠오. 대궐 같은 집과 큰 부자가 문제 아닌 몸이 건강하고 서로의 마음만이 하나라면 무엇을 더 원하겠오. 이곳 월남 땅에 많은 한국 청년이 모두 같을 거요. 나와 당신만이 겪는 수난이 아닌 이상 남들이 참아 이겨내는 고통을 우리라고 못 할게 뭐겠오. 그러니 자기 일에 충실하기로 해요. 다음 편지에 당신의 매일 ~ 하는 일을 보내주고 가정의 변화를 알려주오. 수당은 5월에나 당신이 받게 될 거요. 봄이 오는 계절에 몸조심해요.

당신에 영아가 월남에서

베트남전 맹호부대 소속 대위의 편지 2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보내준 제 6번째의 글을 받았오(5.1. 적은 글)

언제나 한결 같은 당신에 아름다운 마음씨에 그리움이 복 바치는 밤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달려가 뽀뽀하고 싶은 충동이 나를 엄습하는군요. 그러나 우리 마음 굳게 먹고 먼 훗날을 계획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버지 앞으로 긴 글을 적었어요. 그리고 4월분 수당이 지금쯤은 홍천에서 받았을 것 같군요. 매달 20일경이 될거야요. 27,000원 정도 매달 송금할 테니 잘 계획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돼요.

방앗간집(동의네)은 당신이 고통을 받을 때 16,000원을 5개월 약속하고 2만원 주기로(이자 포함) 했으니 6월달에 갚으면 됩니다. 이달 금액에서 만원쯤 갚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갚으면 한 번 내는데 부담을 덜겠지요. 더 빚지지 않겠끔 이자라든가 잘 생각해서 차근차근히 갚도록 해봅시다.

경희 35,000원, 매월 이자 2,000원, 석규 30,000원, 계 타서 만원 보냈다니 20,000원, 동의네 16,000원, 6.30일 이자포함 2만원, 정연네 만원, 재준네 만원, 옆방 5천원 매월말 이자, 전세 35,000원 전부 십일만원 정도 되는군요. 엄청난 일이지만 덤비지 말고 하나하나 급한 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나는 이번달에 여기서 시계 2개(탁상용, 7불 50), 만년필(파카 21, 6불) 2개, 내 손목시계 1개(자동, 21불) 향수 1통(5불)해서 39불 50(10,530) 정도 썼어요. 6월에 인편을 통해서 집에 보내렵니다. 모두 송금을 시키는 것이 좋겠지만 송금에도 한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좀 더 보내려 한다오(3만원 정도)

그리고 당신 화장품은 국내에서 사써야겠어요. 내가 모르니까 비누나 좀 보내지요.

그럼 오늘은 줄이겠습니다. 몸조심해요. 응 애기가 배에 없는지 궁금. 있었으면 바라는 마음. 5.12.

당신에 남편 영아가

베트남전 맹호부대 소속 대위의 편지 3

은경 모

72년도 오늘이 마지막으로 갑니다. 너무도 굴곡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우리는 억척같이 살아왔지요. 그래서 이제 73년부터는 새로운 계획으로 새 마음 새 다짐을 하며 오늘 흘러온 1년간을 회상해 봅니다.

71년도에 중대장을 하며 입었던 상처로 인한 72년도는 년초부터 얼기고설킨 빚더미에서 어느 사람보다도 당사자인 우리들은 고심을 했지요. 모두를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가운데도 항시 당신의 굳건한 위로와 사랑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고, 그래서 먼 곳 월남에라도 다시 가야겠다고 몇 사람 찾아다니며 서울로 뛰어다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여기 월남에서 한 해를 보내는 망년회를 했지요. 너무도 벅찼던 한 해를 보내는 아빠는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마음 흐뭇하고 이제 73년부터는 남달리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다시 굳힙니다.

여기 생활 속에서도 웃 상관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부하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전형적인 한국의 장교가 되려고 노력하오.

조선DB

"6·25전쟁 중 사망한 형 옆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긴 캐나다 참전용사 아치볼드 허시의 유해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치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서울 투어에 나선 참전용사들이 경복궁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의 발전상에 무척 놀라워했다.

지난 4월 26일 파주 영국군 참전기념비에서 열린 전사군인 추모식에서 영국 참전 군인들이 행사에 참석한 한국 여고생들을 만나고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과 가족 2백여 명이 지난 4월 23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피묻은 태극기 건네준 그 한국병사를…"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줄이어… "한국 발전상 놀랍다"

6·25전쟁 62주년을 맞아 자유를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잇달아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20~25일 6·25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국, 필리핀, 덴마크 참전용사와 그 가족 등 1백22명을 초청했다. 한국을 찾은 참전용사들은 서울시내를 둘러보고,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으며, 판문점을 견학한 뒤 참전비에 헌화했다. 지난 4월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찾았다.

6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용사들의 이야기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캐나다 참전용사 허시(Hearsey) 형제의 가슴 찡한 스토리다. 1950년 9월 7일, 먼저 입대한 동생 아치볼드는 곧바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그의 형 조셉은 동생을 걱정하다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듬해인 1951년 1월 6일 동생이 복무하던 '프린세스 페트리셔 연대' 제2대대에 자원 입대했다. 그러나 형과 동생이 만나게 된 것은 10개월이나 흐른 뒤였다. 형 조셉은 1951년 10월 13일 전투 중 총상을 입고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었다. 동생 아치볼드는 자신을 걱정해 참전했던 형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노년에 폐질환을 겪으며 25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던 동생 아치볼드는 지난해 6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가족들에게 '한국에 잠든 형과 합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아치볼드의 딸과 외손자는 그의 유해를 들고 지난 4월 22일 한국땅을 밟았다.

유언에 따라 동생의 유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는 형 옆에 묻혔다. 추모식엔 캐나다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형제의 깊은 우애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그날은 종일 비가 내렸다.

고이 간직하던 '피묻은 태극기' 기증

미국인 참전용사 로버트 슬로트(Robert Slote)씨의 이야기도 가슴을 울렸다. 6·25전쟁 서울 수복 61주년 기념식 참석차 지난해 9월 방한했던 슬로트는 전쟁 도중 만났던 이름도, 계급도 모르는 한국 군인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1953년 1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탱크를 타고 이동하는데 길 옆에 한국군 병사 하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군요. 파편이 옆구리를 관통해 출혈이 심했어요. 25세 정도 돼 보였는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그를 전차로 옮겨 태우고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그는 '고맙다(thank you)'고 하더니, 가슴속에 품고 있던 피 묻은 태극기를 제게 주었습니다."

1953년 4월 고국으로 돌아간 슬로트씨는 다른 나라에 파병됐을 때도 이 태극기를 간직했고, 전역 후 텍사스주 패리스시에 머물 때에도 거실 한켠에 이 태극기를 걸어뒀다고 한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주미 한국대사관을 찾아 이 태극기를 기증하며 "당시 부상당했던 그 병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정부는 이 태극기를 전쟁기념관에 전시하고, 태극기를 전달했던 그 병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주인공을 찾지는 못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그는 서울을 보고 "마치 뉴욕에 온 것 같다"며 "한국의 발전에 놀랍다"고 말했다.

'전쟁사의 전설' 장진호전투 용사들도 방한

미국은 6·25전쟁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내준 나라다. 육·해·공군 합쳐 1백79만명을 보낸 미국은 사망자 3만7천명을 포함해 13만 7천여 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미군의 역할 중 특히 기억할 만한 것은 인천상륙작전과 흥남철수작전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1950년 9월 인천에 기습 상륙, 판세를 뒤집은 미국은 그해 12월 중공군이 대규모 공세를 가해오자 자유를 찾아 모여든 10만여 명의 피란민을 남쪽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흥남철수작전을 펼쳤다.

미군 중에서도 특히 맹활약을 한 것은 미국 해병1사단이다. 인천상륙작전의 돌격부대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해병1사단은 그해 11월 장진호에서 있었던 치열한 전투의 최전선을 담당했다.

당시 미국 해병1사단에서 복무했던 레이몬드(Raymond T. Fitghugh) 등 미 해병 출신 참전용사들은 지난달 한국을 찾아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를 회고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병원선 파견했던 덴마크는 다큐멘터리 준비

자유를 위해 6백30명의 군인을 파병했던 덴마크도 6·25 방한 행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6·25전쟁 당시 병원선 유틀란디아(Jutlandia)호를 파견해 부상자 치료와 의술 보급에 나섰던 덴마크는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동행해 영화제작을 위한 촬영을 진행했다. 한국전 특집 다큐로 제작될 이 영화는 내년 유틀란디아호 귀환 60주년을 기념해 각종 주요 영화제에 출품되며, 동시에 전 세계 방송국에 유통될 예정이다.

1975년 시작된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를 통해 한국을 다시 찾은 용사들은 2011년까지 2만8천5백명에 달한다. 한편 2010년부터 참전용사 후손들을 선발, 등록금 전액과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한국외국어대는 6월 16일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참전용사 후손들과 함께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했다. 한국외국어대에는 현재 8개국 30여 명의 참전용사 후손들이 학위과정을 밟고 있다. G

글·이범진 기자

성실히 국방의무를 수행한 자랑스런 얼굴들이다. 2012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족 대표 20명이 6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이용걸 국방부 차관, 김일생 병무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대 11명 현역복무 유경희씨 가문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올해 3백1가문이 병역명문가 영예 얻어

3대 가족의 남자 모두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집안을 병역명문가라고 부른다.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선정해온 병역명문가에 올해 3백1가문이 선정됐다.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3대 가족 남자 전원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3대 남자 가족 11명 모두가 현역으로 복무한 유경희씨(6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가문이 올해의 병역명문가 대상자로 선정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유씨 가문은 6·25전쟁에 참전한 아버지 유근태(84)씨 등 3대 가족 11명이 모두 현역으로 총 3백9개월을 복무했다.

6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김일생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2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유경희씨 가문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금상에 선정된 옥재문씨 가문과 이규철씨 가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모두 20가문이 표창을 받았다.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 가족, 즉 3대를 본인으로 가정했을 때 1대인 할아버지부터 2대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3대인 본인과 본인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가문의 모든 남자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단 한 명의 병역면제자 있어도 자격 안 돼

3대 가족 중에 병역면제자가 있거나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있는 경우, 또 현역병으로 입영했지만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치지 못한 이가 있다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없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사람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천62가문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에도 지난 3월 5일부터 1개월 동안 전국에서 4백85가문이 신청하여 그 가운데 3백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누적된 병역명문가는 모두 1천3백63가문이 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을 받아 최고 병역명문가로 공인받은 유경희씨는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것만도 좋았는데, 막상 대상을 받고 보니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 4대, 5대까지,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돼도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필요하니 대대로 병역에 대한 책임감을 잘 이어가 병역명문가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경희씨는 이어 "우리 집안이 화목한 병역명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6·25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당하신 아버지를 보며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2 병역명문가 대상을 수상한 유경희씨(뒷줄 왼쪽) 가족. 3대 남자가족 11명 중 8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보충역 판정받자 질병 치료 후 현역 입대도

"요즘 젊은 세대는 내가 복무하던 시절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우리 때보다 단축된 기간 동안 군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싫어서 군대에 안 갈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덕분입니다. 더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조국을 지켜온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지금의 군 복무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유경희씨의 부친 유근태씨는 6·25전쟁 발발 1년 전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지원 입대해 전쟁을 맞이했다. 함께 입대한 친구가 새벽에 같이 보초를 서다 적의 총탄에 전사하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한 유근태씨는 1950년 8월 안강지구전투 당시 지원 나가던 트럭에 타고 있다 전복사고로 총구가 가슴에 찍히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여러 전투를 치르다 가리왕산전투에서 적의 기습으로 수류탄 파편이 가슴과 팔에 박히는 중상을 입고 명예 제대했다. 지금도 몸에 커다란 흉터가 남아 있는 유근태씨는 이후 지역예비군 창설멤버로 소대장을 역임해 우리 군 역사의 산 증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선친의 나라사랑 정신은 후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2대 유경희, 유운희(59), 유강희(54), 유상희(52)씨 4형제, 3대 유기오(34), 유기웅(32), 유기범(28), 유기민(24) 유기욱(22) 유기완(21)씨 6명의 후손들이 모두 성실하고 당당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정신적 토대가 됐다.

특히 3대인 유기욱씨 경우 징병검사 결과 질병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해당 질병을 수술까지 하고 자원해 입영했다.

금상을 받은 경남 창원의 옥재문씨 가문은 1대 옥봉식씨를 비롯 2대 5명, 3대 4명 모두 10명이 현역병으로 총 3백개월을 복무한 집안이다. 또다른 금상 수상자인 이규철씨 가문은 1대 고(故) 이병태씨가 6·25전쟁에 참전하는 등 2대 5명, 3대 4명 모두 10명이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쳤다.

옥재문 · 이규철씨 가문은 각각 금상 받아

한편 국방홍보원 소속 연예병사인 정지훈(예명 비) 병무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는 현역처분에서 제외됐으나 스스로 자원 입영한 모범병사들도 함께 표창을 받았다.

질병으로 현역 입영에서 제외됐으나 해당 질병을 치유하고 자원 입영한 제27보병사단 김주현 상병, 국외영주권자로 군 입영이 연기되었음에도 조국을 지키겠다고 이역만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성실한 군 생활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수송사령부 전승우 상병 등 15명의 현역 병사들이 병역의 숭고한 가치를 높인 올해의 모범병사로 선정되어 병무청장 표창을 받았다. G

글·박경아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선제보훈으로 국민통합 · 나라사랑을

프랑스 · 미국과 같이 국격에 맞는 국가보훈의 선진화 기대

국가보훈처는 올해 '2012 국가보훈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앞으로는 '선제보훈'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50년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에 중점을 둔 '사후보훈'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이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이다.

선제보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가 국가에 바친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반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해 국가가 내우외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 스스로 국가수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간의 사후보훈 수혜자 중심의 수동적 보훈정책에서 차원을 높여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셈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과 함께 보훈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훈정책은 원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끝까지 책임론'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국가의 '끝까지 책임론'은 부족국가 시대를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부족국가의 통치형태가 제정일치(祭政一致)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제사'가 국가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뜻한다. 제사는 오늘의 보훈 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들의 영령을 추모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남은 가족을 책임지지 않았다면, 해당 부족국가는 곧 패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국가가 희생자 추모를 게을리하고, 남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뻔한 멸족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자처했겠는가. 군인들에게 국토방위에 전념케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일깨우는 데 국가보훈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역점을 두는 선제보훈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6·25전쟁 62주년을 맞아 부산 삼성중학교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2백여 명의 학생들이 태극기와 유엔 참전국 국기들을 흔들며 '평화' 모양의 대열을 이루고있다.

대한민국의 보훈정책 역시 시기에 따라 보상 수준의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국가는 끝까지 책임에 입각해 국가유공자들 본인, 그 가족 및 유족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나라가 가난한 시절에는 보훈혜택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으나, 나라살림의 형편이 향상되면서 보훈혜택 역시 꾸준히 늘어났다. 사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서방선진국들은 하나같이 보훈선진국이다. 우리 역시 이제 선진국 문턱에 접어들었으니 선진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가 된 것이다.

기존 보훈시스템도 단순 · 체계화해야

우리의 경우 근현대사가 국난극복의 역사로 점철되다 보니 보훈의 영역과 대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많다는 점이 국가보훈의 선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은 7개 법률이 관할하는 28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가히 '보훈 박물관'이라 할 만하다.

그러다 보니 보훈대상 간 보상 수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가 뒤따르기 십상이다. 보훈대상자들의 민원과 보훈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빈발해 보훈행정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곤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보훈시스템을 누구든 쉽게 용인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체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년 7월부터 보훈대상을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책임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보훈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제보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훈선양정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보훈문화는 기본적으로 국가 상징정책의 핵심 기제 중의 하나에 속한다.

프랑스가 보훈선양정책을 특별히 '기억의 정치'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길거리나 광장, 그리고 국가적 기념시설물의 명칭은 대부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인물들의 이름인데, 이는 자나깨나 이들의 희생정신과 영웅적 행적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 없다. 결국 '기억의 정치'는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나 정신적 예우도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나라사랑정신은 '나'와 '국가'의 일체감, 즉 국가정체성 함양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내적 안보 역량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인종·다민족 국가인 미국이 우리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부(Ministry of Veterans)를 그토록 중시하고 보훈선양에 힘쓰는 이유는 바로 국가보훈이 국민통합과 내적 안보의 가장 효과적인 기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은 대표적인 '소프트파워'

사실 국가보훈만한 소프트파워는 드물다. 오늘날 국력은 대체로 스마트파워(smart power)의 크기로 파악되는데, 이는 경제력과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와 정신력, 문화력, 외교력 등의 소프트파워를 합한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하드파워의 크기는 세계 20대 강대국을 의미하는 G20, 2만달러 GDP와 인구 5천만명을 상회하는 '20-50클럽' 가입으로 이미 만만치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정도로 볼 때 소프트파워의 크기는 선진국이 되기에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훈문화의 창달이 크게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이 아무리 대남 선전선동과 통일전선전술로 대한민국을 흔들려 해도 끄떡하지 않는 내적 힘은 물리력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통합에 기반한 '정신력'이 가장 중요한 힘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훈대상자 위주의 '사후보훈정책'이 이제 온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키는 '선제보훈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할 이유다. G

글 ·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알제리 하천복원에 4대강 기술이 간다

대우건설, 5억달러 규모 엘하라시 하천복원 공사 수주

4대강살리기 사업 등으로 명성을 얻은 한국의 하천복원 기술이 극심한 오염으로 고통받는 알제리 하천을 살리게 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6월 14일 5억달러(약 5천8백50억원) 규모의 알제리 엘하라시 하천복원사업권을 따냈다. 이번 쾌거의 배경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가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해 더욱 의미가 크다.

알제리 '죽음의 강'을 한국 기술로 되살리게 된 배경엔 청계천이 있었다. 지난 2009년 한국을 방문, 청계천을 둘러보고 있던 압둘 말렉 알제리 수자원부 장관은 "청계천이 정말 하수구처럼 사용하던 개천이 맞느냐"며 감탄을 쏟아냈다고 한다. 그러자 동행한 대우건설 이호진 토목환경사업팀 부장이 "청계천도 좋지만 양재천도 아름답다"며 양재천을 소개했다. 양재천을 직접 본 말렉 장관은 "엘하라시 하천을 이렇게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며 "대우건설이 이런 공사를 할 기술이 있느냐"고 물었다.

알제리, 3년간 청계천 등 답사한 뒤 결정

이후 알제리의 수자원부 장관 일행은 2011년까지 3년간 한국의 청계천, 양재천, 굴포천, 안양천까지 수도권 일대 하천을 샅샅이 훑고 다녔다. 이들은 하천복원 기술을 자랑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하천도 모두 답사했다. 그렇게 3년간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건설업체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환경부와 대우건설이 지난 6월 14일 알제리에서 5억달러(약 5천8백50억원) 규모의 엘하라시 하천복원 사업을 계약한 이면엔 정부와 민간기업의 철저한 홍보작전이 있었다. 대우건설이 수주한 공사는 알제리의 수도 알제 중심을 관통하는 엘하라시 하천의 하구부터 상류까지 18킬로미터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알제리 중앙 북부지역에 위치한 수도 알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다. 엘하라시 하천은 각종 하수와 폐수, 쓰레기가 뒤섞여 사실상 '죽음의 강'으로 불린다. 하천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리터당 2백 밀리그램 수준. 이는 우리나라 하수도물과 비슷하다. 알제리는 우기(雨期)가 두 달 정도에 불과해 하천의 유량(流量)이 적고, 생활·공업하수가 하천에 그대로 유입돼 생물은 도무지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다. 하천 주변마저 쓰레기장으로 사용 중이어서 늘 악취가 풍긴다.

대우건설은 이 하천을 살리기 위해 바닥에서 모래와 각종 오염물질 1백20만톤을 파낼 계획이다. 수질 정화기능이 있는 갈대와 옥잠, 연꽃 등을 대규모로 심어 '생태정화시설'을 4곳 만든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정화된 물은 펌프를 이용해 상류로 끌어올려 하천에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양재천처럼 하천 주변에 축구장·농구장, 카페, 산책로 등 주민 편의시설도 짓는다.

엘하라시 하천의 현재 모습. 각종 쓰레기로 인한 토양 오염, 미처리된 오·폐수의 지속적 하천 유입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알제리 엘하라시 하천복원 사업 과정

1. **하천 정비 및 준설** 1백20만톤의 흙을 준설하고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천 깊이와 폭을 정비
2. **고수부지 조성** 오염된 땅을 청소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기반 마련
3. **하수 운반 펌프 시설 설치**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펌프로 상류로 보내고 다시 흐르게 하는 과정
4. **조경 및 각종 체육문화시설 조성** 축구장을 비롯한 문화시설, 습지, 수변광장 공사

이번 쾌거는 환경부가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개도국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사업'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해외 진출을 일궈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환경부는 총괄 사업계획 수립과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사업 실무 관리업무를 맡아 민간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이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환경부 지원… 민·관 협력 해외진출 쾌거

정부의 지원 정책은 2007년 베트남 등 9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환경부는 2012년 현재 칠레, 페루, 방글라데시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알제리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사업'은 2011년 대우건설, 동명기술공단, 하이엔텍, 한국바이오 컨소시엄이 수행했으며, 이후 한국 대표단은 사업 수주를 위해 수차례 알제리 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환경부 장관 친서를 전달하는 등 양국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더불어 주 알제리 한국대사관과 대우건설에서 알제리 수자원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수개월간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대우건설은 1980년대 후반 한강 정비사업과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하천복원 기술을 축적했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은 "한국 하천을 복원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엘하라시 하천복원 공사에 쏟아붓겠다"며 "알제리 정부의 하천정화시설 공사까지 끝나면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알제리는 유럽 국가보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며 "칠레와 페루 등의 하천복원 공사 수주 때도 한국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천복원 공사는 2015년 말 끝난다. 전체 공사금액 중 대우건설의 지분은 70퍼센트(3억5천만달러), 나머지 30퍼센트는 현지 건설업체 코시데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축적돼온 한국의 하천복원 노하우가 해외로 전파된 최초의 사례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이번 사업 수주는 앞으로 한국의 우수한 하천복원 기술이 해외로 전파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하천복원 사업, 중국 합비성 소호 수질개선 사업 등 후속 하천복원 사업 참여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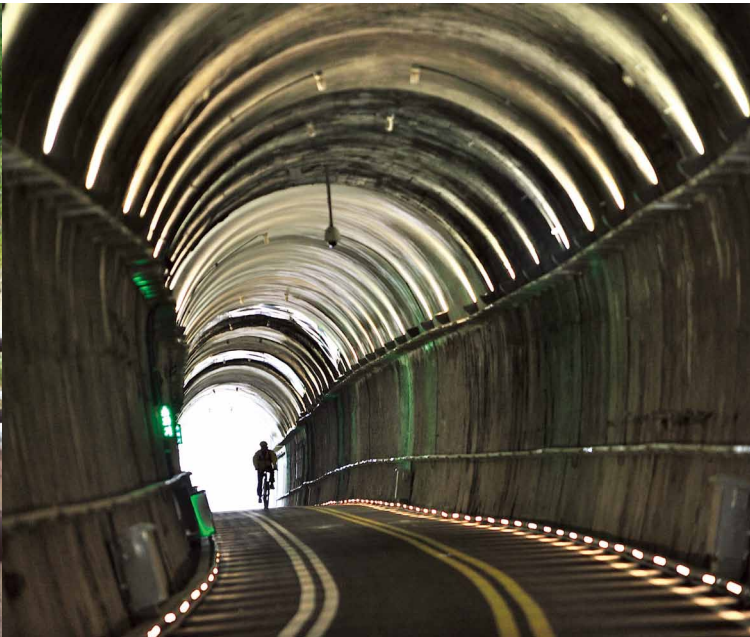
알제리 정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한국의 4대강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하천복원 경험과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주로 협력했던 유럽국가가 아닌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알제리 수도 중심을 흐르는 하천을 다시 살려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천복원사업은 해외건설 부문에서 새로운 '달러 박스'

건설업계는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하천 복원사업 발주가 급증하고 있어 해외건설 시장에서 새로운 '달러 박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천·공기정화 등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는 2010년 7천9백67억달러에서 2020년 1조9백억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연평균 9퍼센트 안팎으로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환경산업 수출액도 2010년 3조3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8.8퍼센트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이범진 기자

남한강 자전거길은 폐철도와 문 닫은 기차역 등이 재활용되어 운치 있는 자전거길로 사랑받고 있다. 사진은 남한강 자전거길의 폐철교 구간.

4대강 종주자전거길 곳곳에서 무인인증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폐공중전화 부스.

자전거 이동을 감지하는 센서조명이 설치된 남한강 자전거길의 봉안터널.

4대강 자전거길은 친환경 재활용 '명소'

폐역사·폐기차가 쉼터로… 안전펜스도 철재 대신 간벌재 사용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 열풍이 일고 있다. 자전거 열풍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있다. 4월 22일 개통한 이후 자전거 열풍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4대강 종주 자전거길은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고 더욱 친환경적으로 조성됨으로써 '친환경 재활용의 전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전거 타기가 붐을 이룬 가운데 지난 4월 22일 개통한 총 1천7백57킬로미터의 4대강 종주 자전거길이 다양한 친환경적 요소를 사용하고 재활용에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이어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가운데 남양주 팔당역에서 양평 양근대교까지 이어지는 26.8킬로미터 구간에 설치된 남한강 자전거길은 개통 이후 주말 기준 약 1만명이 이용하며 친환경 재활용의 명소가 되고 있다.

남한강 자전거길은 중앙선 복선화로 쓸모없게 된 폐철도와 폐철교 구간을 재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전거길로 탈바꿈한 곳이다. 기차가 다니던 옛 모습을 간직한 능내역 등 폐간이역사는 전시공간과 휴게시설로 다시 태어났다.

2008년 폐역 후 방치돼온 능내역사는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재탄생되어 인근을 지나는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폐기차를 개조해 만든 쉼터 공간은 라이딩에 지친 자전거동호인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눈부심 적은 전구 사용해 생태계와 조화

중앙선 폐선 구간에 있는 봉안터널 등 9개 터널에는 자전거의 이동을 감지하는 자동 센서조명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

남한강 자전거길의 폐철교에 설치된 조명 역시 기존의 가로등 높이가 아니라 0.9미터의 높이로 등기구가 설치되어 눈부심을 줄여주고 있다. 또 이곳 등기구에 설치된 전구 역시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제품이 사용됨으로써 강변과 하천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빛 공해를 줄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폐철교와 폐선 등을 자전거길 만들기에 재활용함으로써 폐철교 철거비용 약 1백억원과 철도 노반의 폐자갈 처리비용 60억원가량 등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구간 중 탄금대에서 상주 상풍교까지 이어지는 새재 자전거길은 도로를 새로 구축하기보다 차량 통행이 적은 기존 시·군도, 마을길, 농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을 지키고 예산을 절감했다.

폐공중전화 부스는 무인인증센터로 변신

새재 자전거길 중 이화령 고갯길에 설치한 안전펜스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철재가 아닌 간벌재를 사용함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 자연환경을 아끼고 사업비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철재 펜스의 경우 설치 비용이 미터당 18만원이나 간벌재 펜스의 경우 미터당 10만원 수준이다.

간벌재(間伐材)란 나무가 잘 자라도록 나무 사이의 간격을 띄우기 위해 솎아낸 나무로, 가늘고 옹이가 많아 지금까지는 땔감 등 주로 저급재목으로 사용됐다.

'애물단지'란 말까지 나오며 찬밥 신세였던 공중전화 부스도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맛과 멋을 더하는 명물로 다시 태어났다. 4대강 종주 자전거길의 완전 개통과 함께 본격 시행하고 있는 '국토종주 인증제'를 위해 6월 15일 현재 40개의 폐공중전화 부스가 4대강 종주 자전거길 곳곳에서 빨간색으로 새단장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인증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 김철 사무관은 "폐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한 인증센터는 앞으로 4대강 종주 자전거길에 더 많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국민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대표적 녹색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4대강 캠핑장·축구장 예약 시스템 개선

캠핑장과 축구장 등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한 이용시설물에 대한 예약 시스템이 개선됐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6월 11일부터 원하는 캠핑면(Site)을 골라 캠핑장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많은 일부 축구장에 대해서도 예약기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용도우미 포털(www.riverguide.go.kr)의 기능을 확대했다. 현재 예약가능 축구장은 금강 대전시 구간(갑천, 유등천) 23면과 영산강 승촌보 1면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 3월부터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에서 캠핑장 단위의 간단한 예약기능을 운영해 왔으나 4대강 이용객 수가 5백60만명(6월 첫째주 기준)을 넘어가는 등 국민들 사이에 강 이용문화가 급속히 확산되자 방문객들이 좀더 쉽고 편하게 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앞으로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 등 이용안내 시스템을 이용객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4대강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캠핑장의 경우 주말은 물론 일부 평일에도 예약 완료돼 대기 수요가 많다. 따라서 예약 후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예약객들은 예약을 취소해 다른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개선 내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캠핑장	면 지정 없이 일괄 예약	원하는 면을 지정해 예약(면별 고유번호 부여)
체육시설	예약 없음	일부 축구장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예약제 시행

문의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 www.riverguide.go.kr

1천7백57km 자전거길이 책 한 권에 '쏙'

4대강 전체 코스를 종주하듯 사진 곁들여 파노라마처럼 소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2일 개통한 '국토종주 자전거길' 주변의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 등 종합 이용정보를 함께 수록한 〈두바퀴로 떠나는 전국일주 자전거길〉이란 책자를 발간했다. 1천7백57킬로미터에 이르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모두 개통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길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안내 소개 책자를 발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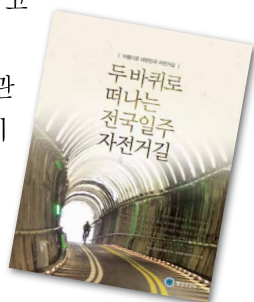
이 책은 크게 ▲국토종주 자전거길 ▲지자체 명품 자전거길 ▲자전거길 지도와 종주인증센터 ▲자전거 상식 및 주행 안전수칙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첫째 편인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는 인천 정서진에서 시작되는 아라 자전거길과 서울의 한강 자전거길, 남한강 자전거길을 거쳐 자전거로는 넘어간다고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화령 고개로 이어지는 자전거길(새재 자전거길)을 소개한다. 이어 낙동강 자전거길, 영산강 자전거길, 금강 자전거길 등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전체 코스를 자전거를 타며 종주하듯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 사진들을 곁들여가며 파노라마식으로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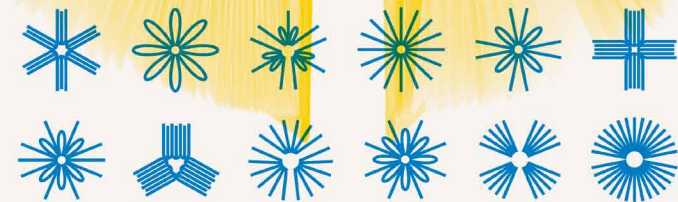
전국 10곳 '지자체 명품 자전거길'도 소개

'지자체 명품 자전거길' 편에서는 경포호 산소길(강릉), 증도 자전거섬(신안), 해맞이 해안로(제주) 등 여행전문작가, 동호인, 잡지사 기자 등이 참여하여 엄선한 전국 10곳의 명품 자전거길을 수록했다. '자전거길 지도와 종주인증센터' 편에서는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전 노선의 지도와 최근 독창적 아이디어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전거길 종주인증제에 대한 설명 등을 담았다. 마지막 편인 '자전거 상식 및 주행 안전수칙'에는 실제 자전거 이용 시 이용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필수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번 책자는 2010년 〈우리나라 그림 같은 여행지〉로 단행본 부문에서 '한국관광의 별'(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 주최)을 수상한 바 있는 박강섭 기자(관광전문기자)와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대한민국 걷기 좋은 길 111〉 등을 저술한 양영훈 여행작가가 직접 자전거길을 다니며 집필하였다.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1천7백57킬로미터의 자전거길 대동맥은 소통과 화합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지역 간의 벽이 낮아지고, 자전거길로 전국이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이 함께하고 있다"며 "이 책이 우리 아름다운 강과 산을 자전거로 찾아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간한 책을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자전거길 이용자들이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 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는 주요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글·이상훈 기자

주최 대한출판문화협회 주관 대한출판문화협회 MBC 문화방송 coex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범우사 아람 아람교육 천재교육 NAVER 2012 서울국제도서전

하나를위한음악재단은 개발도상국에 음악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코스타리카의 유스오케스트라센터에서 강사 워크숍과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다. 유스오케스트라센터는 코스타리카판 '엘 시스테마'라고 할 수 있는 '시넴(SiNEM)'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음악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다

'하나를위한음악재단' 국내외서 음악교육… 한국판 '엘 시스테마'로

쿠바라는 나라의 속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린 것은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이라는 영화였다. 영화의 주인공은 쿠바의 '음악'이다.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이 음악을 담은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6백만장이 넘게 팔렸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음악의 힘이다. '하나를위한음악재단'은 음악으로 전 세계의 문화 소외 계층과 소통하는 단체다.

음악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다. 인간은 음악을 통해 동시대의,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사람들과도 교류를 나눈다. 그러므로 음악은 곧 '소통'이다.

하나를위한음악재단(이하 음악재단)은 음악이 가진 '소통의 힘'을 믿는 단체다. 문화생활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국내외의 문화 소외계층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설립됐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 공연 사업과 교육 사업, 해외 사업 등을 하면서 한국과 해외의 여러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다가가고 있다.

음악재단은 순수 비영리 단체다. 운영 자금은 개인과 기업의 후원금과 교육 사업, 공연 사업 등을 통해 번 수입으로 충당한다.

일반인 상대 아카데미 운영… 수강료로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

주요활동 중 하나는 바로 '음악 교육'이다. 음악재단은 유료로 참가할 수 있는 음악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아카데미 강사진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강사로 활동하는 현역 강사다. 약 5백명이 아카데미에서 유료로 음악을 배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는 수강료로 약 2백50명의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아동들에게 무상으로 음악을 가르쳐주고 있다. 복지관, 보육원, 아동 센터 등 다양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다. 악기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지난 3월에는 음악 교육의 외연을 넓히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바로 '오케스트라 교육'이다. 베네수엘라에서 빈민 아동을 위해 나라 전역에서 시행해 온 '엘 시스테마'의 한국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 일원이 되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익혀야 한다. 음악 연주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자신만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자연스레 익힐 수 있는 셈이다.

1 하나를위한음악재단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오케스트라 교육용 교재 '하모니네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2** 지난 2월 하나를위한음악재단이 탄자니아에서 연 마스터클래스에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찾아와 음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캄보디아·미얀마 등 해외 어린이들에게도 가르쳐

음악재단은 오케스트라 교육을 위한 전문교재 '하모니네이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전국을 대상으로 유상·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서울 마포구, 경기도 부천·성남시 등에 있는 시설을 통해 교재를 보급해 교육을 진행 중이다.

오케스트라 각 파트 중 우선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앙상블(합주) 연주를 위한 초보자용 교재 1권씩을 보급했고, 오는 7월까지 비올라 교재를 포함한 악기별 교재와 오케스트라 연주곡을 담은 교재를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박재현 음악재단 사무국장은 "오케스트라 교재인 하모니네이션은 처음부터 그룹교육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악기를 배울 때 서로 소리를 들으며 함께 즐길 수 있다"며 "기존에는 강사의 역량에 따라 음악 교육방식과 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지만, 이 교재를 사용해 누구에게 배우든 동일한 수준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음악재단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개발도상국에서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0년부터 캄보디아와 코스타리카, 미얀마, 탄자니아 등의 나라에서 공연 및 음악교육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전문적으로 음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진이 부족한 캄보디아에서 음대생을 대상으로 마스터클래스 교육을 시작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1년에는 프놈펜 지역에 합창 지휘자와 피아노 강사를 파견해 20여 명의 현지 어린이로 구성된 어린이 합창단을 교육 중이다. 결손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코스타리카에서의 지원 활동은 올해 3월부터 시작했다. 코스타리카의 '엘 시스테마'인 시넴(SiNEM)과 레온 제13학교 등 6개의 음악교육기관 및 교육센터에서 강사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교육 방법 지도 등의 음악교육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7일에는 미얀마 양곤에서 클래식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환경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 수입은 전액 미얀마 현지 환경단체에 기부했다.

한 달에 한 번 음악회… 입장권 수입으로 나눔 활동도

음악재단은 한 달에 한 번 '아리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음악회도 한다. 2009년 5월에 시작해 지금까지 44회 개최했다. 클래식뿐 아니라 재즈,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했다. 현재는 인사동의 '더 케이 갤러리'에서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공연을 한다. 입장권 수입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병원과 고려대병원에 매월 첫째 주에 각 1차례씩 찾아가 공연을 하는 '나눔 음악회',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지역에 한 달에 한 번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나들이 음악회' 등의 사업이다.

음악재단의 임미정 이사장은 "사람마다 악기 하나씩을 다루게 된다면 인생이 풍요해질 것"이라며 "지원 사업의 수혜자뿐 아니라 음악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음악인들도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글·하주희 기자

후원 및 공연 문의 www.music4one.or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축구 이끌 김보경의 '네가지'

월드컵 예선 2연승 주도… 드리블·스피드·경기 조율·골 결정력 갖춰

브라질 월드컵을 향한 축구 대표팀의 발걸음이 상쾌하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6월 1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2차전에서 레바논에 3대0 완승을 거뒀다. 한국은 2연승(승점 6)으로 1승 1무에 그친 이란을 제치고 A조 선두를 유지했다. 한국이 2연승한 중심에는 '포스트 박지성'으로 꼽히는 김보경(23·세레소 오사카)이 있다.

뉴시스·조선DB

한국축구 공격의 핵으로 등장한 김보경. 박지성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면서 김보경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김보경은 박지성의 백넘버 7번을 물려받았다. 10년 전의 박지성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은 두 선수를 합성한 것이다.

지난해 초 성남 일화가 일본서 겨울 전지훈련할 때 일이다. 성남은 미야자키현에서 일본 J리그 강호 세레소 오사카와 연습경기를 치를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 당시 세레소 오사카에는 한국에서 홍익대를 다니다 K리그를 거치지 않고 J리그로 건너간 김보경과 축구대표팀 제3의 골키퍼 김진현이 포진해 있었다.

연습경기였지만 두 팀은 한 치 양보 없는 접전을 벌였는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은 김보경이 워낙 빠르고 종횡무진으로 성남 진영을 헤집고 다니며 괴롭히자 성남 선수들은 뿔이 날대로 났다. 201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으쓱대던 때라 더욱 그랬다.

성남 선수들은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김보경에게 사정없이 거친 태클을 해댔다. 김보경은 수없이 걷어채이고 맞고 하면서 그라운드에 나뒹굴었다.

막이 오른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2차전에서 2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한국 축구대표팀의 새 아이콘으로 떠오른 김보경. 그의 화려한 등장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너무나 극적이다. 박지성은 지난해 초 아시안컵 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전념하기 위해 국가대표에서 스스로 은퇴하면서 김보경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다. 그리고 김보경은 박지성의 백넘버인 7번을 물려받았다.

최강희호 간판 아이콘으로 등장

그러나 일본 J리그에서 뛰는 데다 지난해 조광래 감독 체제의 축구대표팀에서 유럽파인 지동원(선덜랜드)이나 손흥민(함부르크SV) 등에 가려 김보경은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초 최강희 감독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애초 최 감독은 부상 회복 중인 이청용(볼턴 원더러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북 현대 사령탑 시절 이동국과 팀의 전성기를 주도한 브라질 출신 에닝요를 귀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 6월 9일 카타르와의 아시아 최종예선 원정 1차전에서 이동국(전북 현대)을 원톱, 김보경을 왼쪽 윙포워드, 이근호(울산 현대)를 오른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장시키는 카드를 들고 나왔고 대성공을 거뒀다. 골잡이 이동국이 침묵했지만, 0대1로 뒤지고 있던 전반 26분 김보경의 절묘한 '칩샷' 센터링을 이근호가 헤딩 동점골로 연결시키며 이를 발판으로 한국대표팀은 4대1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었다.

1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2차전 영웅도 김보경이었다. 원톱 이동국과 처진 스트라이커 이근호를 지원사격하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출격해 선제골과 두번째 골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대표팀의 3대0 완승을 이끌었다. 그동안 13차례 A매치 동안 골맛을 보지 못했으나 이날 천금보다 귀중한 골을 2개나 성공시키며 골잡이로서의 가능성도 한껏 발휘했다.

박지성도 후계자 지목… 유럽진출 꿈

김보경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성 후계자라는 꼬리표가 부담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동기 부여를 많이 해줬고, 박지성이 은퇴하고 난 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과도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맨체스터시티를 좋아하는데, FC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게 꿈"이라고 유럽 진출의 꿈을 밝히기도 했다.

일선 축구지도자나 전문가들은 김보경에 대해 '박지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재목감'이라고 평가한다. 박지성이 갖추지 못한 기술까지 겸비했다는 이유에서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움직임이 많고 정말 많이 뛴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지능적인 축구를 한다. 축구 지능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킥도 잘하고, 드리블 능력과 스피드가 좋다. 박지성처럼 많이 뛰지만 스타일은 사뭇 다르다. 테크니션이어서 앞으로 박지성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하재훈 전 프로축구 감독의 평가다. 최강희 감독도 "23세 시절 박지성보다 현재의 김보경이 낫다"고 평가한다.

김보경은 1백78센티미터, 73킬로그램으로 크고 다부진 몸집은 아니다. 하지만 왼발잡이로 매우 빠르고 활동량이 많아 박지성을 연상시킨다. 신갈고 출신으로 이미 19세 이하 등 연령대별 국가대표로 발탁돼 발군의 실력으로 축구인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J리그 첫해인 지난해 28경기 8골을 기록했고, 올 시즌에도 세레소 오사카의 주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김보경의 화려한 등장에 대해 "J리그가 키워냈다"고 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과거 박지성처럼 '섀도 스트라이커'나 중앙 미드필더, 좌우 윙포워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를 평가한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중간순위 (13일 현재)

순위	국가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1	한국	2	0	0	+6	6
2	이란	1	1	0	+1	4
3	카타르	1	1	1	-2	4
4	우즈베키스탄	0	1	1	-1	1
5	레바논	0	1	2	-4	1

이청용의 공백 때문에 좌우 윙포워드에 누굴 쓸지 고민하던 최강희 감독. 김보경의 등장으로 그런 고민이 싹 없어지게 됐다. "양 날개는 그동안 고민했던 포지션인데, 김보경·이근호가 카타르전에서 잘해 줬다. 특히 김보경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선수다." 최 감독이 카타르와의 1차전 뒤 한 말이다.

김보경이 박지성의 후계자로 우뚝 섬으로써 축구 대표팀 공격 옵션도 상대에 따라 더욱 다양해질 수 있게 됐다.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박주영(27·아스널)도 지난 13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병역의무 수행을 재차 다짐하면서 앞으로 최강희호에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주영과 함께 이청용까지 복귀하면 공격자원은 그야말로 넘쳐난다. 최 감독으로선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양해진 공격옵션… 올림픽도 월드컵도 밝은 전망

현재 대표팀은 해외파와 국내파, 신구 조화가 잘 이뤄져 있고, 능력있는 선수들이 많다. 게다가 우려했던 아시아 최종예선 1, 2차전에서 모두 통쾌한 완승을 거둠으로써 앞으로 남은 6경기도 큰 부담없이 치르게 됐다. 월드컵 본선 8회 연속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최강희호는 9월 11일 우즈베키스탄과 아시아 최종예선 원정 3차전을 치른다. 이어 10월 16일엔 이란과의 원정 4차전을 벌인다. 아직 두 차례 어려운 원정경기 고비를 넘겨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후에도 4경기가 더 남아 있다. 그러나 1·2차전에서 7골을 터뜨리는 폭발적 공격력을 선보이며 완전하게 자신감을 충전시킨 태극전사들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G

글·김경무 (한겨레신문 스포츠 선임기자)

'몬트리올 유도 銅메달' 조재기 동아대 교수

"학생 잘 가르쳤다고 강의 금메달 받았죠"

올림픽의 계절이 돌아왔다. 하계·동계별로 4년마다 한 번씩 이 시기가 되면 국가대표 선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다. '승리 지상주의'라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한순간에 온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올림픽만 한 게 없다. 그런 올림픽의 힘 때문인지 덩달아 역대 메달리스트들도 화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많은 스포츠 스타들은 경기장을 떠나 사회에서도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

하주희 기자

조재기 교수는 '유도장에서는 유도복을 갖춰 입는 게 예의'라며 유도복으로 갈아입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 1백90센티미터의 키에서 내뿜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1970년대를 살아간 한국인이라면 '조재기'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조재기 선수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메달리스트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금메달을 딴 북한에 종합순위에서 한참 뒤졌던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종합 19위를 기록해 북한은 물론 주최국인 캐나다마저 제쳤다. 단 50명의 선수로 일궈낸 쾌거였다. 쾌거의 주인공 중 한 명이 조재기 선수였다.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금메달을 땄고 조재기 선수는 유도 무제한급에서 동메달을 땄다. 유도 무제한급에서 메달을 딴 첫 한국인이었다.

조재기 선수는 은퇴 후 부산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로 33년째 재직 중이며 2008년에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경기장을 떠나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 지난 6월 12일 동아대 캠퍼스에서 그를 만나봤다.

어렸을 때부터 유도선수를 꿈꾸셨는지요.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한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1학년 때 유도 감독님이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유도부에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유도를 시작했어요. 몬트리올 올림픽에는 하마터면 출전 못할 뻔했습니다. 제가 헤비급이었는데 올림픽에서 메달 가능성이 없다고 헤비급은 대표단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었죠. 당시 동아대 총장이 대한체육회 김택수 회장에게 전화해서 '혹시 비용 때문에 그런 거면 본인이 부담할 테니 데려가만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가게 됐어요."

유도 무제한급에서 메달을 따셨습니다. 처음부터 무제한급에서 메달을 예상하셨나요.

"무제한급 경기는 체급별 경기가 끝나고 체급에 관계없이 나라별로 한 명씩 나와서 붙는 경기입니다. 지금은 올림픽에서 없어졌죠. 우리나라는 그때 무제한급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 경기가 다 끝난 후 생각을 해봤는데 잘하면 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헤비급 경기 때도 아깝게 3, 4위전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무제한급에 나가고 싶다고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선수촌에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런 다음에 총감독님께 '무제한급 경기에 안 보내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하고 말해서 겨우 출전했죠. 무제한급 경기할 때 양정모 선수 결승 경기가 있었어요. 경기장에는 저랑 김희태 코치님 둘만 갔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귀국했을 때 환영이 대단했겠네요.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꽃가루를 맞으며 시청 앞에 가보니 연단 위에 부모님이 앉아 계시더군요.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효도를 평생 딱 한 번 했는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일본에서 유도 공부를 하셨죠.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텐리대(천리대)의 무도연구소에 갔습니다. 김희태 선생님이 '그래 한번 와봐라' 해서 일단 한 달 동안 있기로 하고 간 것이었죠. 가자마자 일본에서 3등 하는 선수와 시합을 시키더라고요.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 한국에서 괴물이 왔다'면서 있고 싶은 만큼 있으라고 했어요. 메달을 따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텐리대 무도연구소로 갔습니다. 그때는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무도장에서 훈련한 선수가 메달을 따고 교수가 돼서 나타났다고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격하게 훈련을 하고 나면 몸무게가 5킬로그램이 빠지더군요. 날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건 몬트리올 다음의 모스크바 올림픽 때문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나가질 못했죠. 서방세계에서 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했으니까. 그 무렵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못 간다는 걸 일찍 알았습니다. 목표가 없어진 채 훈련을 하니까 일본 유학생활 마지막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울기도 하고…. 그 무렵 제 후원회장을 하던 분이 오셔서 '조 선수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아버님이 좋은 몸을 주셨고, 조 선수는 열심히 해서 동메달까지 땄다. 그러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세계 최고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삼대론입니다. 그때부터 가슴속에 삼대론을 품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로 변신 후 자식을 금메달리스트로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셨습니까.

"자식들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 하형주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제 모든 기술을 전수해줬습니다. 하형주가 금메달을 딴 순간 '아 이제는 됐다. 제자가 금메달을 땄으니 삼대론을 이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재기 교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출전 당시 선수촌에서 메달리스트들과 촬영한 기념사진. 왼쪽부터 유도의 박영철(동메달), 조재기, 레슬링의 양정모(금메달), 전해섭(동메달), 유도의 장은경(은메달).

경기인으로서 드물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까지 지내고 행정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조직위원회에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메달리스트를 찾았습니다. 일본어를 하는 저와 영어를 하는 박신자씨가 뽑혔죠. 두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무원들과 토론도 하고 일을 기획하는 법 등 행정에 대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대회 마치고 부산에 돌아와서 부산체육회 사무처장을 맡게 됐어요. 그 후에는 대학 학생처장도 맡았습니다. 당시 대학 자율화 시기라 학내 분규가 많았거든요. 학생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취직시키고, 그렇게 한 시절 보내고 나니까 또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렸죠. 부산 아시안게임 끝나고 제가 카타르 아시안게임 조정위원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준비를 도왔죠. 그 후에 맡게 된 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잘 치러내느라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촌놈이 참 여러 자리에서 많은 걸 배웠죠."

최근 전직 국가대표가 범죄에 연루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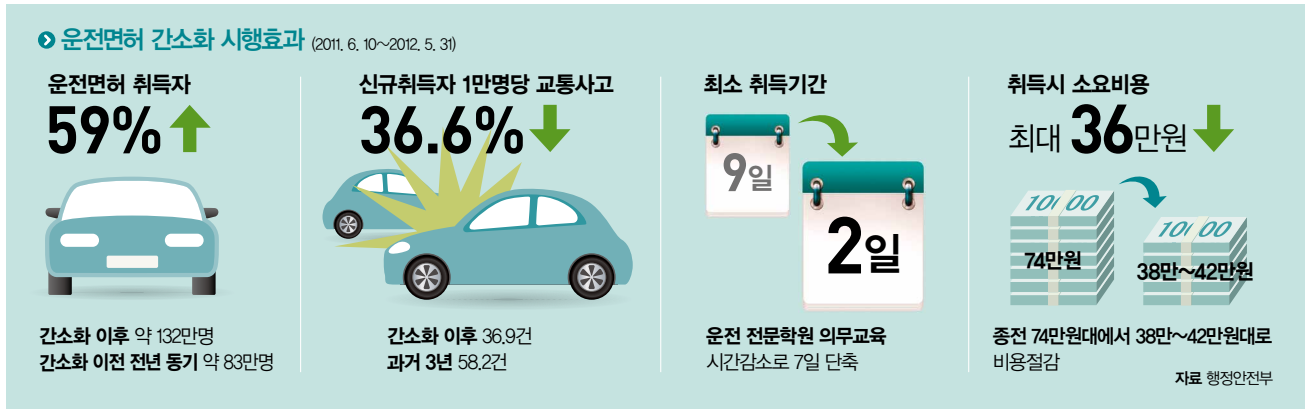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지요. 이 중 두 개 이상 가지려고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는 명예를 주는 자리입니다. 선수생활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만 해야 합니다."

교수로서 인기가 있으십니까.

"지난해에 학교에서 강의 잘했다고 우수강의상을 주더라고요. 금메달 받았습니다." G

글·하주희 기자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했더니…

면허 취득 늘고 사고율은 감소 '파란불'

정부가 지난해 6월 10일 실행한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는 늘어났지만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이필영 기획재정담당관은 6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약 1년간 운전면허 신규취득자(1·2종 보통)는 약 1백32만명으로 전년 동기 83만명에 비해 59퍼센트 증가한 반면,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과거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률보다 36.6퍼센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홍석기 운전면허계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제 운전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는 S자 주행이나 T자 주행 같은 장내코스시험이 폐지되고, 응시자가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취득 절차 단순화로 시간·경제적 부담 줄어

홍 계장은 "불필요한 코스 시험을 간소화하고 대신 현실에 필요한 도로주행 시험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고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2011년 6월의 일이다. 한 달 뒤인 2011년 7월 정부가 사고 발생률을 측정한 결과 48퍼센트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뒤인 2011년 12월 측정한 결과 역시 약 40퍼센트대로, 유사한 감소율을 기록했다.

홍 계장은 "간소화 1년 뒤인 2012년 5월 말까지 사고율 통계를 집계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40퍼센트에 육박하는 감소세를 기록했다"며 "간소화 조치 시행 이후 1년간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가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한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던 기존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하고, 운전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감축했다.

또 기존에 1천7백62개소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했던 적성검사를 모든 병, 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방했고, 장내에서 실시되는 운전기능교육 시간도 15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도로주행 시간도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간소화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주행 위주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 1·2종 보통 면허 외에 원동기 면허 등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서도 주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G

글·이범진 기자

'통일항아리'에 염원을 담아보세요

다양한 이벤트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키로… www.unijar.kr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 준비 캠페인'의 허브 사이트인 통일항아리(www.unijar.kr)가 지난 6월 4일 오픈,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 사이트를 온라인 캠페인의 중추로 삼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남북통합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다.

통일부가 통일에 따른 이득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모적 국방·외교 경쟁과 이념 대립이 마무리돼, 국력 신장과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인구가 3천만명 이상 증가하고 국토가 한반도 전역으로 크게 확장돼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의 창'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더불어 이산가족, 탈북자 같은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고 민족 문화가 창출되며 국민의 심리적 제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통합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재정을 미리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통일항아리' 캠페인의 취지다. 통일부는 2030년을 통일 시점으로 가정했을 때 55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정부 출연금과 민간 모금을 통해 그 예산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정부 출연금은 남북협력기금 중 통일계정을 편성해 마련할 계획인데 이 예산안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돼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소원 말하기·응원하기 등 이벤트 '풍성'

통일항아리 사이트는 통일부 홈페이지, SNS 및 포털 검색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이벤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로는 사이트 오픈 기념 행사인 '통일 소원 말하기'가 대표적이다. '나는 통일이 되면 ~하겠다'와 같이 통일이 되면 좋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 응모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보게 되는 또 다른 이벤트가 '통일항아리 응원하기'다. 이름,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응원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홈페이지에는 이벤트와 함께 유명인들의 응원 영상 등의 동영상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된 것. 가수 김태원, 대한민국 홍보대사 서경덕 교수,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의 응원 영상을 볼 수 있다.

통일항아리 홈페이지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준비한 통일은 축복입니다'라는 슬로건이다. 이것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준비한 통일은 축복입니다"라는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독일 전 대통령의 말에서 인용한 것. 1984~1994년까지 10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한 바이체커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독일이 통일을 이룰 당시 서독 대통령으로 일했다. 그는 2010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통일에 합의하고 난 후 '통일연대세(tax)' 협정을 맺는 등 통일이 급속하게 진행돼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의 이름인 '통일항아리'는 류우익 장관이 통일계정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로 직접 고안한 것. 류 장관은 "과거 어머니들이 어려울 때도 큰일에 대비해 항아리에 쌀 등을 넣어뒀다가 요긴하게 썼다"며 통일을 위한 밑천을 담는다는 데서 그와 일맥상통해 항아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G

글·이현민 인턴기자

푸른 숲·맑은 물이 자랑인 곳 테마정원·과학체험관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멋진 국도 중 하나인 6번국도를 따라 구불구불 드라이브를 즐긴다. 강원도의 관문인 인제와 횡성을 지나면 오늘 여행의 목적지인 평창에 닿는다. 이제 막 여름에 접어든 강원도의 이 도시는 소박한 멋을 가득 담은 시골장터와 짙은 초록의 숲과 아이들의 낭창한 웃음소리와 온갖 맛난 음식들로 가득하다.

가족 여행객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로하스가든 와카푸카의 전경.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나 여성들이 요즘 평창 여행을 더 즐거워하는 까닭은 '로하스가든' 때문이다. 용평면 도사리의 산골짜기에 들어앉은 로하스가든은 한 여행사가 운영하는 유럽풍 펜션 단지 '로하스파크' 내에 문을 연 테마정원이다. 봉평에서 용평 방면 운두령 자락 아래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들어가면 로하스가든에 닿을 수 있다.

첫인상부터 기대 이상이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울창한 숲을 그대로 정원으로 이용했는데 곳곳에 아기자기하게 들어앉은 이국적 느낌의 건축물 덕분에 마치 유럽 시골의 어느 작은 마을에 찾아온 것 같다. 꽃밭과 작은 연못, 맑은 물 졸졸 흘러내리는 인공수로, 앙증맞은 조형물이 어우러진 곳에서 기분 좋은 산책을 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리빙관이다.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곳에는 직접 제작한 핸드페인팅 도자기, 식기류와 친환경 상품 및 패브릭, 인테리어와 소품과 아이디어 제품 등으로 가득하다. 넓은 매장 곳곳에 아름다운 꽃과 화초들이 가득해 눈과 마음이 모두 즐겁다.

사계절 썰매장도 있어 아이들도 즐거워

리빙관 오른쪽 건물은 진한 커피향 가득한 카페 칠공공이 있는 곳이다. 세계 유명 커피 산지에서 들여온 최고급 원두를 직접 호스팅해 커피를 만들어준다. 평창의 7백미터 고지에서 볶아내는 진하고 뜨거운 커피 맛이 궁금하다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가 멋진 건물, 어린이 과학체험관 '와카푸카'는 로하스가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다. 거울이나 착시 효과를 이용해 뒤죽박죽 유쾌한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착각의 방'과 '보호색의 방', '중력의 방', '착시 체험 갤러리' 등 과학관을 비롯해 사람의 움직임이나 소리에 반응하는 모션센서의 원리를 이용한 '미디어 체험관', '트릭아트' 등 다채로운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와카푸카를 나오면 다시 초록의 숲과 산책길이 기다린다.

로하스가든을 감싸고 병풍처럼 늘어선 산자락을 따라 숲 속 산책을 즐기다가 단지 위쪽에 줄지어 선 멋진 캠핑촌에 들러 블로그에 올릴 기념사진을 찍고, 뾰족지붕 우뚝우뚝 늘어선 펜션 단지 안 골목길을 걸어봐도 좋다. 신체활동 왕성한 아이들이 성화라면 사계절 썰매장에 들러 온 가족이 신나게 놀 수도 있다.

시골장이 열리는 봉평읍내에선 장터 구경에 나서본다.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옛날 것들과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구색 잘 갖춘 좌판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평창읍에서 미탄면으로 이어지는 길.

곤충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와카푸카 내 곤충갤러리.

1 오래 전 버스가 다니던 신작로였던 멧둔재 옛길. 2 봉평 5일장에서 메밀전병을 만드는 상인. 3 멧둔재 옛길에서 만난 산딸기.

봉평장은 장이 열리는 모양도 독특하다. 읍내를 가로지르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골목마다 장이 선다. 첫번째 골목에는 인근 동해바다에서 방금 도착한 생선들이 가득하다. 오징어, 도다리, 삼식이 등 여름 생선이 좌판 가득 쌓여 있다.

생선 골목을 지나면 달콤한 향기가 확 풍긴다. 좌판마다 펼쳐진 노란 참외나 수박, 윤기나는 토마토, 참다래 등 잘 익은 과일에서 풍기는 기분 좋은 냄새들이다. 봉평장 골목 중 가장 왁자글 북적이는 골목은 단연 '봉평체육사' 앞에서 시작하는 먹거리 골목이다. 이 골목에는 평창 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전역에서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과 요깃거리가 모여 있다.

메밀·한우·송어요리 찾는 발길 늘어나

기름칠한 솥뚜껑에 묽게 반죽한 메밀을 두르고 배춧잎 두어 장 올려 파나 고추 등을 얹어 노릇노릇 구워낸 부침개에 송송 썬 김치를 돌돌 말아낸 메밀전병이 그 대표 주자다. 올챙이국수나 묵국수도 인기 만점이다. 올챙이국수는 옥수수 가루로 걸쭉하게 반죽해 구멍 뚫린 바가지에 내리면 방울방울 떨어지는 모양이 올챙이 같다고 해 붙은 이름으로 강원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종종 진짜 올챙이가 들어 있느냐고 묻는 외지인들이 많아 장사치들이 웃음보를 터뜨린다. 올챙이묵이라고도 하는데, 정선에서는 '올창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왕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평창에서 꼭 맛봐야 할 것이 두 가지 더 있다. 먼저 평창한우. 평창한우 판매점이자 식당인 한우타운을 찾으면 질 좋은 평창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미식가들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다. 한우의 고장답게 평창에서는 한우를 응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질 좋은 우둔살과 고슬고슬 잘 지어낸 밥이 어우러진 한우초밥이나 밀쌈에 불고기와 여러 가지 볶은 야채를 함께 넣고 돌돌 말아 먹는 한우밀쌈 하며 잘 양념해 버무린 육회를 매콤 달콤한 비빔냉면 위에 얹어 먹는 육회냉면 등은 평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훌륭한 요리들이다.

고깃간 주인에게 평창 소가 왜 이렇게 맛있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과학적이다. 평창의 평균 해발고도는 7백미터로 인체의 생체 리듬에 가장 좋은 높이라고 한다. 사람도 살기에 좋은데 동물 또한 매한가지 아니겠냐며 웃는다.

평창의 두번째 맛은 바로 송어요리다. 평창은 우리나라 최초로 송어양식이 시작된 곳이다. 깨끗하고 맑은 1급수에서만 사는 평창 송어는 다른 지역 송어에 비해 살이 찰지고 맛 좋기로 유명하단다.

4 곱고 선명한 주황색으로 먹음직스러운 송어회. 5 평창의 자랑인 한우로 요리한 밀쌈. 6 아삭한 야채를 곁들여 먹는 송어회. 7 고소하고 찰진 식감의 평창한우와 잘 지은 밥이 만나 탄생한 한우초밥.

송어회는 보통 양배추와 당근, 오이 등 아삭아삭한 야채에 콩가루, 들깨 가루, 초고추장을 함께 넣어 설렁설렁 비벼 먹는다.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나 비린 맛이 없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다. 평창에서는 송어회 말고도 송어탕수도 맛볼 수 있다. 얇은 밀가루 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내 달콤한 소스를 뿌려 낸 송어탕수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하다.

평창읍 남쪽에서 미탄면으로 이어지는 해발 1천미터 높이 삼방산 동부능선을 찾아가면 멧둔재 옛길을 걸을 수 있다. 지금이야 울퉁불퉁한 평범한 산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은 한때 평창읍에서 미탄면을 거쳐 정선까지 연결되는 신작로였다.

단장 안 된 멧둔재 옛길엔 야생화가 지천

지금의 멧둔재 터널이 뚫리기 전 이 길은 삼방산과 장암산, 청옥산 등으로 꽁꽁 둘러싸인 두메산골인 미탄면 사람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멧둔재 터널이 뚫리면서 폐도가 됐지만 최근 도보여행 열풍을 타고 '멧둔재 옛길'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으로 다시 불려 나오게 된 것이다.

미탄면 창리의 샘내마을에서 시작된 길은 몇 개의 고개를 넘어 평창읍 노론리까지 연결된다. 총길이는 8킬로미터 정도. 천천히 걸으면 세 시간가량 걸린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길섶에는 산딸기가 주렁주렁 달렸고 야생화도 지천으로 피어 있다.

쉴새 없이 지저귀는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 바위틈 물 흐르는 소리에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진다. 길 자체만으로는 '명품길'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다만 멧둔재 옛길은 지금도 복원이 끝나지 않아 아직 안내 표지판이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또 대부분 돌길이기 때문에 바닥이 단단한 트레킹화가 필수이며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걷는 게 안전하다. G

글·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김형호 (사진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영동고속도로를 타면 평창에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장평IC에서 빠져나와 진부 방향으로 가다가 용평면 방면으로 진입해 우체국과 용전중학교 등을 차례로 지나 도사리 방면으로 가면 로하스파크(로하스가든)가 나온다. 끝자리 2, 7일마다 장이 서는 봉평5일장은 봉평 면사무소를 찾아가면 된다. 미탄면 미탄주유소 건너편 휴게소 뒤쪽 길로 오르면 옛길이 시작된다. 노론리 오물처리장이 옛길의 종착지점이다.

먹을 곳 한우요리는 영동고속도로 횡계IC 인근의 **대관령한우타운**(☎033-332-0001)에서 저렴하고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고기 마트에서 고기를 사다가 바로 옆 식당에 가서 구워먹을 수도 있다. 한우요리를 전문으로 내는 식당도 함께 있다. 한우초밥 1만5천원, 불고기 밀쌈 3만5천원, 육회비빔냉면 8천원 등이고 한우요리는 미리 예약하는 편이 좋다. 송어요리는 미탄면 백운리 **백운송어양식장**(☎033-333-3861)에서 직접 양식을 하면서 식당을 겸한다. 용평면 노동리의 **운두령송어횟집**(☎033-332-1943)은 고풍스러운 한옥에 들어앉은 식당으로 깔끔한 상차림을 받아볼 수 있다. 곤드레나물밥도 괜찮다. 정선에서는 주로 말린 곤드레나물을 사용하지만 평창에선 잘 삶아 급랭시킨 것으로 밥을 짓는다. 요즘에는 바로 딴 나물로 지은 밥을 먹을 수 있어 더 좋다. 봉평면내에도 잘하는 몇 집이 있는데 용평면에서는 '**금당가는길목**'(☎033-332-6176)이 유명하다.

잠잘 곳 강원도 여행의 1번지이자 2018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라 다양한 종류의 숙소가 즐비하다. 가족과 함께라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보광휘닉스파크**(☎033-330-3000)나 **용평리조트**(☎033-335-5757), **한화리조트**(☎033-334-6100) 등이 좋다. 가장 최근 문을 연 대단위 휴양단지인 **알펜시아**(☎033-330-0000)에서는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취향에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로하스가든과 함께 운영되는 **로하스파크**(☎033-334-3200)도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를 갖춘 다양한 규모의 펜션형 객실이 있다.

여행 정보 문의 평창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www.yes-pc.net, ☎033-330-2399 평창군종합관광안내소 ☎033-330-2771 미탄면사무소 ☎033-330-2602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더위 다스리는 '초계탕'

더위가 점점 일찍 찾아온다. 쉬 무기력해지고 피로해지는 여름철에는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여름이면 보양식으로 입맛을 되찾고 체력을 보강하여 폭서를 이겨냈다. 우리네 여름보양식의 기본적인 철학은 '복달임'이라는 풍습이 상징하듯 뜨거운 음식으로 열을 다스리는 이열치열이다.

이열치열의 오묘한 이치와 당위성을 많은 문헌이 설명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좀 발칙한 해석도 가능하다.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는 여름에 차가운 음식을 해먹을 여건이 되지 않았고 위생문제 때문에라도 음식을 끓여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현실을 이열치열이라고 둘러댄 것은 아닐까. 그 증거로 석빙고를 운영하여 여름에 얼음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궁에서는 차가운 보양식을 해먹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초계탕(醋鷄湯)이 바로 궁에서 해먹던 냉보양식이다. 초계탕은 닭고기로 끓인 육수를 차게 식혀 식초와 겨자로 간을 한 다음 살코기를 잘게 찢어서 넣어 먹는 전통음식이다. 옛날에는 여기에 버섯, 해삼, 전복까지 들어갔던 모양이니 상당히 호사스러운 음식이었던 셈이다.

유창우 기자

요리 까다로워 시중에선 맛보기 힘들어

초계탕이라는 이름의 내력을 식초의 '초(醋)'와 겨자의 평안도 사투리인 '계'를 합친 것이라고들 하는데, 닭 계(鷄)자를 쓰므로 초와 닭을 합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틀린 해석은 아닐 것 같다.

조선시대의 일반요리책에는 어디에도 초계탕의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795년 정조의 어머니이자 사도세자의 비였던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는 초계탕이 찬품의 하나로 버젓이 올라 있다. 효자로 유명했던 정조가 불행한 과거를 가진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베푼 조선조 최대 잔치의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초계탕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그 뒤인 1827년, 효명세자가 경복궁의 자경전에서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차린 연회를 기술한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와 그 이후의 진연의궤나 진찬의궤에는 대부분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초계탕이 궁중의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기록에는 명월관 등을 통해 궁의 음식이 민간에 흘러나오던 1930년대의 〈간편조선요리제법(簡便朝鮮料理製法)〉에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그 무렵에야 보통사람들도 초계탕을 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옛날에야 초계탕이 귀한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냉장고가 집집마다 보급되어 있고 닭의 공급도 원활해져서 우리 국민의 연간소비가 6억마리를 넘을 정도로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다. 식초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고 겨자 또한 식욕증진 등에 도움이 되며, 음식의 맛과 향을 더해주는 향신료로 널리 알려져 있는 데다 구하기도 쉬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시원함이 더위를 잊게 하며,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초계탕을 여름에 즐겨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계탕은 여전히 만나기 힘든 음식이다. 궁중음식으로 전해 내려와 일반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자칫하면 비린내가 나는 요리법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식당에서도 잘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된 궁중요리를 사람들이 몰라서 놓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구 저동의 평래옥에 가면 서울에서는 드물게 메밀면을 넣은 서민풍의 초계탕을 맛볼 수 있다. G

글 ·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한 시대를 구제한 재상

조선 당쟁사를 보면 대체로 서인들은 경직돼 있고 강경한 편이며 암묵적으로 임금보다 신하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이후 조선은 서인들의 세상이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왕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린 것도 궁극적으로는 역시 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소론이 생겨난 때문이다. 이후 노론이 다시 벽파와 시파로 갈린 것도 시파는 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병자호란 당시 김상헌의 주전론에 맞서 주화론을 주창했던 **최명길**(崔鳴吉 · 1586~1647)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교육을 받아왔다. 아마도 식민지 경험 때문에 주화론이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최명길의 주화론이 바로 그런 경우다.

최명길은 서인 중에서도 가장 유연했던 이항복의 제자다. 이항복은 동인(남인) 계통의 이덕형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정도로 사고가 유연했다. 이런 유연성은 제자 최명길에게도 이어졌다.

선조 말 급제해 광해군 시절 병조좌랑서 파직
인조반정에 참여 9인의 1등공신에 이름 올려
병자호란 때 왕과 민생 위해 항복문서 작성
정적들도 "소인"이라 욕하되 공적만은 인정

선조 말 문과에 급제한 최명길은 광해군6년 병조좌랑에서 파직됐다. 당시 정권은 동인에서 파생된 북인들이 좌우할 때였다. 이후 반정 양대장의 한 명인 이귀의 아들들과 가까웠던 최명길은 반정계획에 적극 가담해 9명의 1등공신 가운데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린다. 최명길은 목숨을 거는 결단력도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후 그의 벼슬살이는 탄탄대로였다. 병자호란이 났을 때 최명길은 이조판서였다. 이때 예조판서 김상헌과의 논쟁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하다. 최명길은 "싸우자니 힘이 부치고 감히 화의하자고 못하다가 하루아침에 성이 무너지고 위아래가 어육이 되면 종사를 어디에 보존하겠느냐"며 명분론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래서 자신이 항복문서를 쓰자 강경파 김상헌은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때 최명길은 찢어진 문서조각을 풀로 이어붙이며 김상헌의 행위도 의미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유연함을 보였다.

이 때문에 실권을 장악한 김상헌류의 노론은 최명길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심지어 소인배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나라와 임금, 그리고 민생을 위해 온 몸을 바친 충정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647년 그가 죽었을 때 인조실록이 남긴 인물평을 보면 반대파 노론이 최명길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화의론을 힘써 주장함으로써 청의(淸議)에 버림을 받았다. 남한산성의 변란 때는 척화를 주장한 대신을 협박하여 보냄으로써 사감을 풀었고 환도한 뒤에는 그른 사람들을 등용하여 사류와 알력이 생겼는데 모두들 그를 소인으로 지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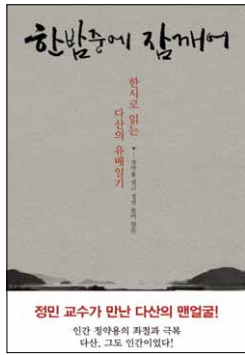
같은 서인 출신임에도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심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욕에 가까운 '소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실록도 그의 장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위급한 경우를 만나면 앞장서서 피하지 않았고 일에 임하면 칼로 쪼개듯 분명히 처리하여 미칠 사람이 없었으니 역시 한 시대를 구제한 재상이라 하겠다."

정적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 대목 '한 시대를 구제한 재상' 그가 바로 최명길이다. G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한밤중에 잠깨어〉

인생의 나락에서 얻은 성찰

정약용 지음 · 정민 풀어 읽음
문학동네 · 1만3천원

한때 그만큼 잘나가던 사람도 드물었다. 만 스물한 살 때인 1783년 과거 급제 후 그가 벗들과 뱃놀이 갈 때 광주 부윤이 악공(樂工)들을 '협찬'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승승장구였다. 관직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라고 자부하던 그는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를 총애하던 정조가 1800년 세상을 떠나고, 서학쟁이로서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의 앞엔 유배의 길만 남았다. 올해로 탄생 2백50주년을 맞은 다산 정약용 이야기다.

1801년 경상도 포항 장기(長鬐)로 보내져 7개월, 다시 전라도 강진으로 옮겨 18년을 지내야 했던 그는 유배지에서 많은 한시를 남겼다. 다산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정민 한양대 교수가 다산의 유배시 120여 수를 모았다. 다산의 독백이라 할 민얼굴을 보여주는 시들이다.

긴 유배생활 좌절을 이겨내는 과정을 한시로

처음 장기로 유배 갔을 때는 후회도 있지만 기개는 여전했다. 그러나 유배가 길어지면서 의기소침해진다. '밤(夜)'이란 시에선 '병 낫자 봄바람은 떠나버리고/시름 많아 여름밤은 길기도 하다'(病起春風去 愁多夏夜長)라 하고, '귀양지의 여덟 위안'이란 시에선 '서풍은 고향 집 지나서 오고/동풍은 나에게 들러서 간다'(西風過家來 東風過我去)며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바람에 빗대 노래했다.

'괴로운 비 괴롭다 일부러 내리는 듯/밝은 해 나지 않고 구름도 안 걷힌다'(苦雨苦雨雨故來 白日不出雲不開)며 그칠 줄 모르는 장맛비에 언제 풀릴지 모르는 유배 생활을 오버랩시키고, 흰머리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흰머리 다시금 검게 할 수 있다 한들/이 마음은 말라버려 다시 젊기 어려우니'(白髮可使有還黑 此心已枯難再榮)라 한다. 절망, 분노, 좌절의 끝에 깊은 성찰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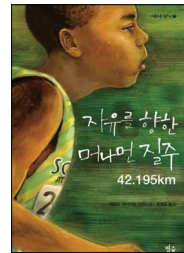
'부귀란 진실로 한바탕의 꿈/궁함 또한 한바탕 꿈일 뿐일세./꿈이야 깨고 나면 그뿐인 것을/육합(六合·천지)도 한 차례 장난인 것을.' 이런 성찰로 스스로 추스린 다산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강진 시절의 대표작을 이뤄냈다.

유배를 갔어도 천재 소리를 듣던 기억력은 그대로여서 한시에도 동양 고전과 고사를 자유자재로 등장시킨다. 그러나 자칫 장애물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을 현대 상황에 맞게 해체한 정민 교수의 솜씨 덕분에 2백년 전 한 지식인의 내면 변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인생의 고단한 순간에 들춰보면 위안이 될 글이다.

글 · 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새로 나온 책

자유를 향한 머나먼 질주 42.19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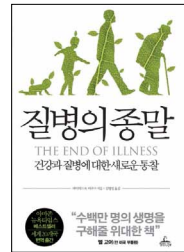
제임스 라이어던 지음 | 별숲 · 9천원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조시아 투과니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소설이다. 조시아는 인종격리정책이 자행되던 시대에 달리기를 통해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내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불평등과 억압, 비참한 조건을 극복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그의 삶을 읽다 보면 자유와 평등, 평화를 꿈꾼 한 인간의 생애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새기고 싶은 명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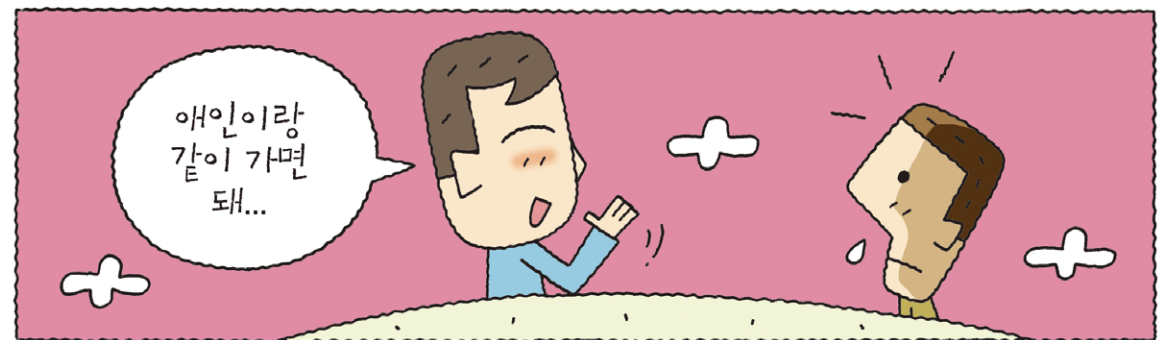
박수밀 · 송원찬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1만5천원

가슴에 품은 한 문장의 힘은 크다. 이 책은 공자에서 김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조가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되뇌었던 명문을 소개한다. 단순히 문장만이 아니라 문자의 전후좌우 맥락과 원문을 함께 소개해 사유의 폭을 넓힌 점이 눈길을 끈다. 선조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문장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명문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질병의 종말

데이비드 B. 아구스 지음 | 청림Life · 1만7천원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인 저자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통해 기존 상식을 깨는 새로운 의학지식과 건강관리법을 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장기복용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개인의 생리조건, 가치관 등에 따라 스스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 관리법도 담았다. 저자는 스티브 잡스의 주치의이기도 했다.

가장 빠른 길

글과 그림 · 최영순

우리들에겐 사랑 그 자체로 충분하다. 마치 목적을 두지 않고 방랑 그 자체의 즐거움을 바라는 것처럼. -헤르만 헤세

2012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총 20개국 5백80개사의 책을 만날 수 있다.

올해 주빈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문화 체험할 신간 풍성

2012 서울국제도서전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전시회인 2012 서울국제도서전이 '책을 펼치면 미래가 보인다'는 주제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총 20개국 5백80개 출판사가 참여해 아동도서를 포함한 인문사회, 과학, 문학, 예술, 철학 등 전 분야의 도서를 소개한다. 특히 중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 네번째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신간도서 2천여 권을 소개하는 전시와 직접 아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저자와의 대화'에는 영화 〈은교〉의 원작자인 소설가 박범신을 비롯해 김훈, 은희경, 시인 정호승 등 역대 최다 19명의 작가가 참여해 독자와 만난다.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등 9명의 명사 강연이 펼쳐진다.

또 한글 활자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잃어버린 활자를 찾아서'와 헤밍웨이, 헤르만 헤세, 사르트르 등 노벨문학상을 받은 유명 작가 10인의 삶과 일상을 느낄 수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북멘토 프로그램'은 올해 새롭게 마련된 행사로 편집, 작가, 북디자인 등 세 분야에서 출판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리 · 이현민 인턴기자

일시 6월 20~24일 **장소** 코엑스 A/B홀 **문의** 대한출판문화협회 ☎070-7126-4732

연극 제20회 젊은연극제

제20회 젊은연극제가 6월23일부터 16일 동안 종로 노을소극장 등에서 열린다. 국내 유일의 대학연합축제로 올해는 '변화하는 세상, 새로운 가치'를 슬로건으로 전국 52개 대학의 공연 관련 학과 학생들이 서울시내 8개 극장에서 공연을 펼친다. 주요 공연으로는 중앙대의 뮤지컬 〈Songs for a New World〉, 우석대의 연극 〈날 보러와요〉 등이 있다.

일시 6월 23일~7월 8일
장소 서울 종로구 노을 소극장 등
문의 ☎010-7332-7087

박람회 2012 녹색 식생활교육 박람회

2012 녹색 식생활교육 박람회
Great Food Education Fair

2012 녹색 식생활교육 박람회가 6월 22일부터 3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환경', '건강', '배려'라는 3대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도시농부 학교텃밭, 식탁 위의 탄소발자국 등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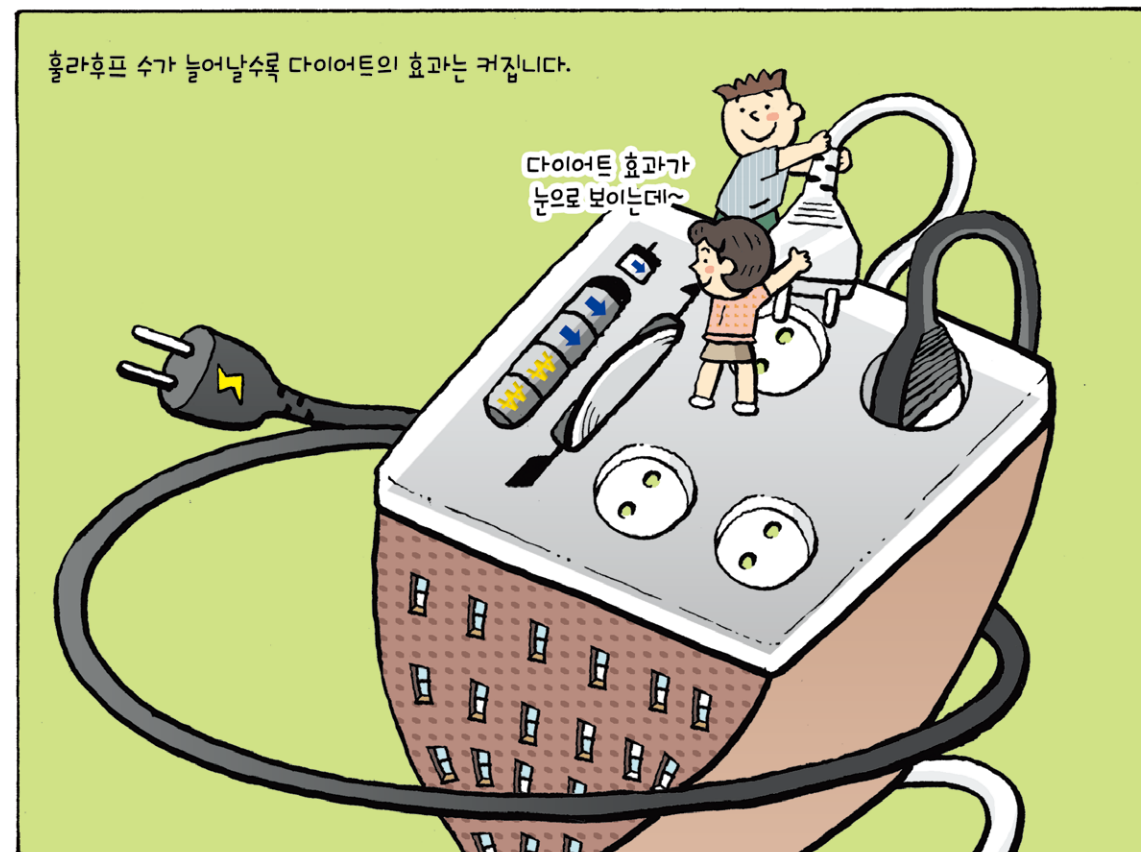
일시 6월 22~24일
장소 서울 서초구 aT센터 1, 2전시장
문의 ☎02-6300-8140

6월 셋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6월 3일~6월 9일

	곡명	가수
1	Monster	빅뱅
2	Like This	원더걸스
3	Still Alive	빅뱅
4	EGO	빅뱅
5	Feeling	빅뱅
6	빙글빙글	빅뱅
7	안좋을때 들으면 더 안좋은 노래	형돈이와 대준이
8	Girlfriend	원더걸스
9	2HOT	G.NA
10	하루 끝	아이유

에너지 다이어트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여름철 피크시간대 전기 덜 쓰기로 날씬한 여름 보내세요~

조용필이 歌王인 이유

조용필은 '가왕'이다. 다들 그렇게 말한다. 실제로 '친구여', '그 겨울의 찻집', '길리만자로의 표범', '단발머리',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부지기수의 히트곡, 탁월한 가창력, 식지 않는 인기, 후대에의 막강한 영향력을 전제하면 우리 음악가 가운데 그의 위로 놓을 자는 없다. 80년 대중음악 역사상 한국의 대중가수 가운데 1위는 말할 것도 없이 조용필이다. 1이라는 숫자는 조용필을 위해 남겨둬야 할 영구결번이다.

왜 가왕인가. 먼저 그때까지 한국에 존재하고 있던 모든 음악 스타일을 통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로커 출신답게 '못 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는 록이고, '창밖의 여자', '그 겨울의 찻집'은 서구형 발라드, '일편단심 민들레야'와 '허공'은 트로트이며 '친구여' 같은 곡은 포크의 숨결이 흐른다.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과 같은 민요도 했고 소울, 재즈, 컨트리풍의 노래도 있고 심지어 '선구자'와 같은 가곡도 불렀다. 하지만 장르를 모두 시도했다는 의미보다 한 곡에 여러 장르의 스타일이 융합되어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점에서 '장르의 위대한 통합' 또는 '한국 대중음악의 용광로'라는 찬사가 주어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한국에는 조용필이라는 장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음악의 기본에 대한 숭배와 열정이 '조용필의 힘'

모든 음악을 포괄하고 섞어서 자신의 독자적 스타일을 확립한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질문을 조용필에게 던졌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난 한 번도 당대에 사랑받는 음악을 놓친 적이 없다. 젊은이들의 감각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시대의 음악, 앞서가는 음악을 알기 위해 오래도록 AFKN을 청취해왔으며 지금도 젊은 밴드와 가수의 음반을 듣는다!"

그는 '가수는, 음악가는 무엇보다 음악을 부지런히 듣고 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한 가지 스타일에 고정되어서는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없다. 우리는 그를 통해 음악가의 시작과 끝이 음악 듣기임을 다시금 깨친다. 또한 그가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노래를 잘했지만 그에 앞서서 노래를 잘하기 위해 무진 노력을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는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오랜 무명의 시련기를 벗고 비상했다. 스타덤도 잠시, 얼마 후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 그만 활동정지를 당했다.

하지만 그는 여느 가수처럼 세상을 한탄하거나 비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간에 노래 소리를 바꾸는 자기혁신을 단행한다. 가창력을 연마하고 울림을 얻기 위해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고행을 거듭했다. 그리하여 1980년, 이전과는 다른 괭음의 '창밖의 여자'로 컴백해 더 큰 존재로 포효했다. 조용필은 음악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열정과 욕심을 지닌 인물이다.

갈수록 그의 전설은 확고해지고 있다. 지난해 소록도 위문공연 때는 '작년에 한 다시 온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밴드와 함께 다시 공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를 잘 모르는 새로운 세대들도 '나가수'를 비롯한 오디션 프로를 통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와 '길리만자로의 표범'과 같은 조용필의 노래와 친숙해지고 있다. 모든 행사기획, 방송프로, 공연의 관계자들이 품는 꿈이 조용필의 무대를 꾸려보는 것이다.

"가수의 기본은 무대에 서는 것이다. 스케줄이 빠듯해지면 음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다. 가수가 있어야 할 곳은 콘서트 무대다. 무대에 서야 큰 가수로 커나갈 수 있다!" 조용필은 무대에서 계속 노래하는 게 가수의 기본임을 일깨운다. 기본의 숭배와 열정, 이것이 조용필의 성공 동력이다.

글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EXPO 2012 YEOSU KOREA

93일간의 꿈꾸는 바다 이야기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대사 박지성

바다에서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 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 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 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 모 | 참가국 100여 개국

〈입장권 안내〉
▶ 보통권 : 성인 33,000원, 청소년 25,000원, 어린이·경로 19,000원
▶ 평일단체권 : 성인 27,000원, 청소년 17,000원, 어린이·경로 13,000원
★ 입장권 구매시 모든 전시관·공연·아쿠아리움 관람 가능 (3D 입체영상관 별도)
★ 입장권(또는 예매권) 구매자에 대한 열차운임 30% 할인(왕복 1회)
단, 열차출발 2일전 예매시 및 출발 또는 도착역이 순천, 여천, 여수엑스포역에 한함

〈입장권 구매처〉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홈페이지 | www.expo2012.kr
▶ 인터파크 홈페이지 | www.interpark.com
▶ 전화예매 | 조직위원회 입장권부 (1577-1763) 인터파크 고객센터 (1544-1555)
▶ 실물구매 | 광주은행 (1588-3388) 기업은행 (1566-2566) 이마트 (02-380-5678)전 지점
코레일 (전국 주요역 내 여행센터 19곳과 여수엑스포역에서 판매)
▶ 안내전화 | 1577-2012
★ 여수세계박람회의 전시·공연·정보안내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홈페이지 내 [여수엑스포 길라잡이]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fficial Global Partners · Official Partners · Official Sponsors · Official Suppliers · Official Internet Sponsor · Official On-line Shopping Mall